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페  
이  
내

질문  
하며,

너  
만  
고  
모

나  
아  
가  
기

펴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김혜정  
펴낸날 2023년 10월 31일  
기획/편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김신아, 김동은, 유호정  
발표/토론 김신아, 김동은, 김신현경, 나무, 호연  
디자인 그래픽피엘에프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 02-338-2890  
상담 02-338-5801  
이메일 (담당) f.culture@sisters.or.kr  
(대표)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sisters.or.kr>

이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발언들은 성적 동의 또는 적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조건을 이야기하고 동의담론을 함께 탐색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자료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발췌, 인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 삭제된 채 일부 발언만 인용될 경우 자료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 들어가며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는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경험을 '성적 동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듣고 정리한 인터뷰 자료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은 2023년 난감하고 불편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동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했다. '동의'가 '여성의 내심이 바뀌는 문제'로 일축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성적 동의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성적 동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담에서 비어 있는 이야기가 드러나면, '성적 권리'가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지 역시 드러나지 않을까? 작년 말부터 기획하고 올해 하반기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2023년 10월 26일에 동 제목의 행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집은 인터뷰 기획, 진행, 분석을 담당한 성문화운동팀의 발표와 세 분 패널의 토론문 및 플로어 토론이 담겨있는 후속 자료집이다.

연구의 기획 배경은 발표문에서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가 여러 분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성적 동의 스터디는 인터뷰 기획 및 분석을 위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든든한 터가 되었다. 여성들의 성적 경험에 언어와 관점을 나누어 준 스터디 구성원들 - 이산, 호연, 동글, 호랑, 오매, 란, <불처벌>을 읽고 함께 토론해준 반성매매인권 행동 이름 혜진, 노랑조아, 나나 활동가에게 감사드린다. 회차별 스터디 후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방대한 분량의 녹취록을 작성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활동가들과 함께 녹취록 작성에 고생해주신 자원활동가 가을, 너굴, 연주, 은화, 이산님께도 감사드린다. 여성들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듣고 드러낼지

들어가며

고민이 많았던 활동가들에게 정확한 언어와 따뜻한 응원으로 자문해주셨던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김신현경 님,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호연 님, 성평등작업실 이로 이산 님, 기록노동자 희정 님, 연세대 문화인류학 박사 과정 이상희 님께도 감사드린다.

결과공유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으로 연구물을 보완해준 세 분의 토론자께도 감사드린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김신현경 님은 동의를 질문하는 여성들의 성적 실천이 소비문화와 디지털테크놀로지, 젠더화된 친밀성 노동의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어주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나무 님은 삶, 욕망, 몸, 관계의 주체로서 인정투쟁을 해야하는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동의’와 ‘성적 권리’를 재정의한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호연 님은 경험에 대한 해석과 서사의 힘을 중심으로 이번 작업의 한계 및 과제, 동의 교육 현장에 비판적으로 적용될 지점 등을 짚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준 15명의 여성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와 이야기를 엮는 이가 역할로 구분되어 있지만, 참여자들의 언어에서 ‘경험의 의미화’가 시작된 것이기에 이번 인터뷰 분석은 공동의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활동가들의 몫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후속 과제를 통해 계속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한계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미비한 점이 있을지라도, 15명의 여성들의 힘 있는 이야기가 사회에 환류되고 다른 여성들과 소수자들의 성적 동의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순서

사회 수어통역 문자통역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윤남, 이현정 정윤실



발표	04	<b>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b> 김신아, 김동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토론 1	82	<b>김신현경</b>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토론 2	86	<b>나무</b>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3	101	<b>호연</b>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플로어 토론	105	

#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김신아, 김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인터뷰 참여자 소개 3. 본문

### 1) 연구참여자 참여 동기

- ① 말하기 욕구
- ② 상담소 운동에 대한 동참과 확장

### 2) 연애와 섹스에 대한 장소, 규범, 욕망

- ① 친밀한 만남의 장소들
- ② 기대와 욕망
  - 정상성 획득하기
  - 섹스는 즐거운 것
  - 나에 대해 알아보기
  - 친밀성에 대한 기대
- ③ 장벽과 터부
  - 획득하기 어려운 정상성
  - 성적 터부
  - 안전하고 싶음

### 3) 동의로 질문한 그 섹스들

- ① 협상력을 뺏긴 섹스
- ② 연애/결혼 관계에서의 해야 하는 섹스
- ③ 기대와 다른, 섹스만 하는 관계
- ④ '나의 욕망'이 배제된 섹스 각본

### 4) 혼란스러운 동의, 문제는 관계 : 동의 찾아가기

- ① 적극적 함의로 섹스 구조화하기
- ② 30%의 동의도 동의일까? 페미니스트, 동의와 씨름하기
- ③ 계약서가 보장하지 못한 것
- ④ 문제해결 언어로 채택되지 않은 '동의', 해결의 열쇠는 '관계'

### 5) 동의에 대한 고민은 성폭력에 대한 질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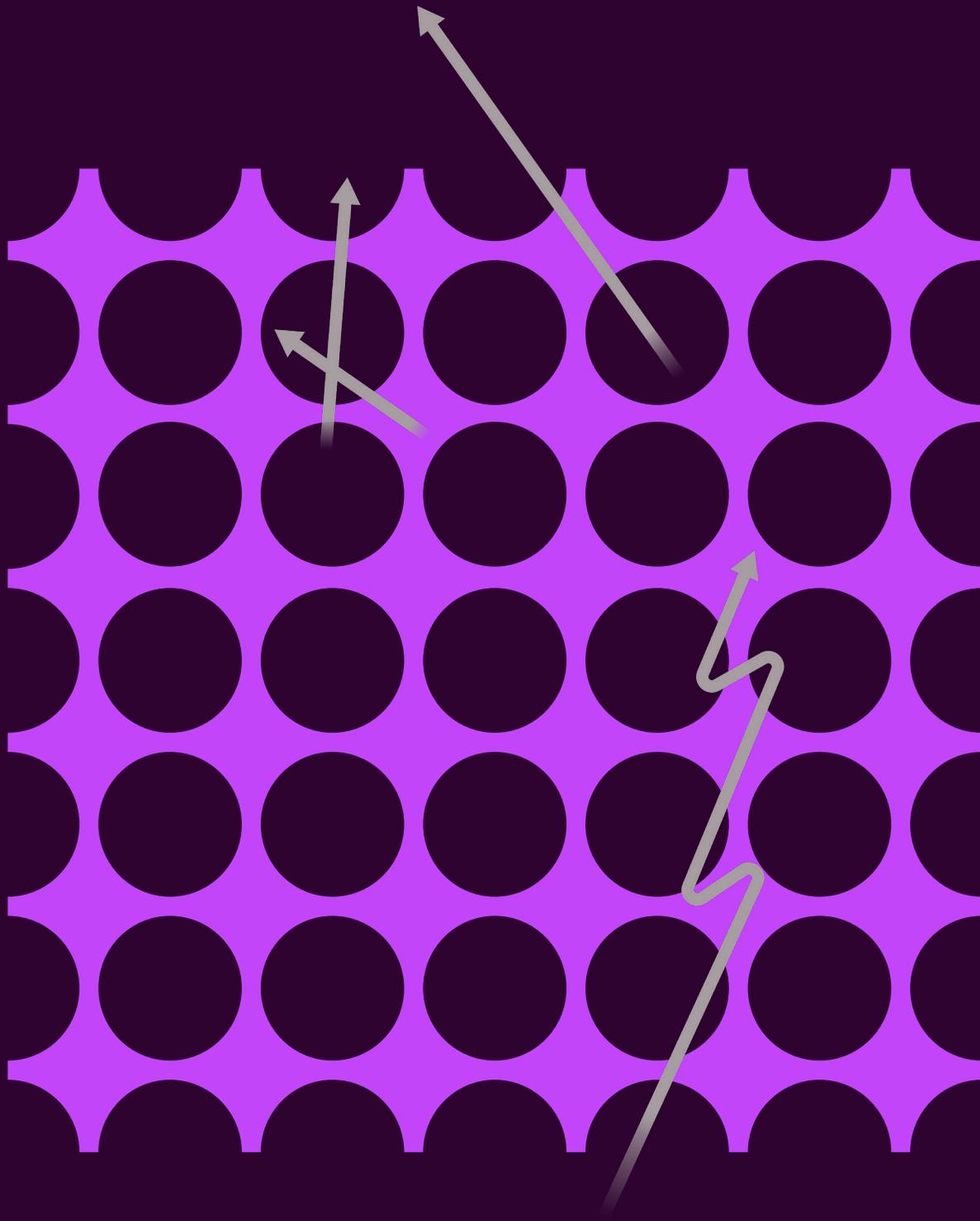
- ① 담론, 지식, 상담/조력을 통한 성폭력 명명
- ② 명명하지 않기(1)한계에 대해 판단하기
- ③ 명명하지 않기(2)다른 기준 만들기
- ④ 내가 결정했지만 남은 것

### 6) 위험 너머 나아가기

- ① 매번 성폭력만 있겠어?
- ② 안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위험을 탐지하기
- ③ 폭력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즐거움의 발견으로부터
- ④ 권력을 갖는 섹스

## 4. 결론 : 위험을 함께 돌파하려면

# 1. 서론



이 연구물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적 동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의 긴밀하게 연관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나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 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 동의'**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적 동의'가 당연한 실천 윤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동의나 의사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왜곡과 통념을 마주한다. 결국 **'동의가 무엇인가' 해석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성적 동의 문화와 담론을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서,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실천적, 담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 개념화 및 홍보 활동이 전개 되어 왔다.

**'적극적 합의'**(Affirmative Consent)는 단지 표면상으로 행위 직전에 네(Yes)/아니오(No)라는 응답을 받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이고 상호적이고 과정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 적극적 합의 다섯 가지 원칙

**명시적으로** 노출 있는 옷차림? 우리 집에 왔으니까? NO

**의식이 있을 때** 술, 약물에 취해 있거나 잠들었을 때? NO 성적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루밍? 교묘하게 속여서? NO 성적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위력 때문에? 그 밖에 어쩔 수 없이? NO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항상** 예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오늘도? NO 아까 합의했어도 중간에 멈추면 중단!

제안해온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상호적인 성적 실천에서는 '적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동의' 담론이 어떤 성적 권리 담론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개입을 이어왔다. 현행 강간죄에서의 최협의 폭행협박 판단기준은 성폭력을 '부녀의 정조 권리'로, 인권이 아니라 명예나 도덕적 가치 훼손의 문제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다. 때문에 강간죄가 성폭력을 유형력의 극심한 정도 및 여성의 저항을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사회적으로도 피해자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양산해 왔다는 것은 중요한 비판지점이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형법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성폭력 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으로 자리잡았고,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법익이 이러한 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의사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실무진들은 많은 재판현장에서 성폭력 판단시 피해자의 의사와 동의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sup>1</sup>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 담론에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과 맥락, 상황 보다는, 최협의 폭행협박 판단기준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 여부 중심으로 피해자의 동의 의사 역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의 조건이나 위치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면 피해가 아니라 성적 행위를 선택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면 피해가 부정되기 십상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있는 피해자의 구분이며, 누가 보호할 만한 피해자/여성 인지에 대한 오랜 기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 동의'가

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1대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023년 7월 25일(화) 13: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새로운 법적 사회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마냥 편하게 기댈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성적 동의를 새로운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권 침해로 보던 시기의 법적, 사회적 개념과 단절하는 동시에 지금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한다. 여러 성적 현장에서 여성들이 동의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동의(선택)를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게 되어야 하는가, 성적 동의는 자기 결정을 넘어 어떠한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 이 연구물은 두 번째 차원으로 전개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구 활동물이다.

여성들의 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에 주목해야겠다는 필요는 '적극적 합의'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난 현장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성적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당시에 전 남자친구가 설득해서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 성폭력으로 규정한 경험, 남편과 해야했던 포르노 같은 성관계 경험, 매주 같은 요일 상대의 집에 가서 섹스를 해야했던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다.

이런 경험들은 '동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되었다. 여남 동수로 600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는 응답에 여성이(42%) 남성보다(20%) 2배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여성들은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해서' 라는 사유를 40.5%가 선택했다. 남성보다(23.3%) 유독 더 많은 사유였다. 왜 여성들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 '적극적 합의'에 대해 알리러 간 현장에서는 적극적 합의 다섯 가지 원칙이 여성들의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피드백도 있었다.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동의에 대한 질문, 관점을 형성해갈 필요를 체감했다.

한편 2023년 초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철회와 관련하여 ‘비동의 강간죄’가 이슈화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담론을 비롯해 여성운동에 대한 백래시 정권 하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쟁점은 다른 토대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법적 처벌하는 것은 ‘남성 피고인의 권리 침해’, ‘과도한 처벌’이자 ‘무고 위험을 높이는 일’이며 ‘성인남녀를 미숙한 존재로 평가절하’하고 ‘나약한 여성상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중심 여론, 법무부 장관의 발언, 국회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8년 미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비동의강간죄 또는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법개정안을 원내 모든 정당에서 발의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비동의 강간죄 관련한 지배적 담론이 성폭력 피해자 관점의 법개정 필요에서 성폭력 가해자 권리 방어 필요로 변화함을 의미했다. 동시에 ‘성적 동의’와 관련해서도 폭력의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 여성들의 내심에 불과한 것, 남성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동의를 대한 의미망이 달라져 가는 가운데 이 인터뷰가 기획되고 분석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본 인터뷰 분석은 성적 동의를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의미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기존의 성폭력 및 성적 권리 담론에 한계를 확인하며 ‘성적 동의’를 새로운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 인터뷰는

- 1 동의를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성정치화 하고
- 2 여성들의 해석투쟁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동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 3 성적자기결정권의 확장을 탐색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기획, 실행, 분석되었다.

## 2. 연구방법 및 인터뷰 참여자 소개



본 인터뷰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범주를 혼인, 연애, 데이트, 씬, 캐주얼섹스로 규정했다. 친밀한 감정적, 육체적, 성적 상호작용이 오갈 것이라고 기대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를 고민한 적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동이가 고민이 된 경험’으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성적 경험, 이 사람과 정말 괜찮은가? 싶었던 관계, 마음에 남고 불편했던 섹스 등”을 제시했다. 동의 하지 않은 섹스 내지는 원치 않은 섹스보다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제시하여서, 동의라는 쟁점이 개인의 어떤 경험과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지 보고자 했다.

주된 모집 방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메일 뉴스레터, 회원 대상 문자 등을 통한 자발적 신청이다. 온라인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준 인터뷰 참여자가 10명이고 나머지 5명은 활동가 주변이나 유관기관 소개를 통해 받았다.

인터뷰이 모집 당시, 지역,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등에서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상담소 홍보채널을 통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청소년, 장애인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청소년과 장애인 연구 참여자를 별도로 홍보하기도 하였으나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인터뷰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세 활동가가 번갈아 가며 진행했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이후 몇몇 질문이 추가로 생긴 인터뷰 참여자에 한하여 1회 더 진행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 현황을 보면, 거주지역 15명 중 13명이 서울에 거주한다. 성별정체성을 보면 14명이 시스젠더 여성이고 1명은

젠더플루이드이다. 성적지향을 보면 11명이 이성애자이며, 범성애 1명, 동성애 2명, 무성애 1명으로, 다수가 이성애자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3명으로, 다수가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이다. 연령을 보면 후기 10대 연구참여자가 3명, 20대 연구참여자가 4명, 30대 연구참여자가 4명, 40대가 2명, 50대가 2명으로, 25세에서 39세의 연구참여자가 8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주관적인 계층 소속감, 소득 수준, 몸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 학력 등도 사전 질문하였다. 중산층에 속한다고 한 연구참여자는 7명이고, 하류층에 속한다고 한 연구참여자는 6명, 경제적으로는 하류층이지만 사회적 참여도는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1명이었다.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4명, 100만원 이하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명,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명,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5명, 300에서 4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6명이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말했다.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성적 실천과 계층 및 가족 관계의 연관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본문에서 다루었다. 성적 실천과 우울증에 대한 연관성은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할 만큼 드러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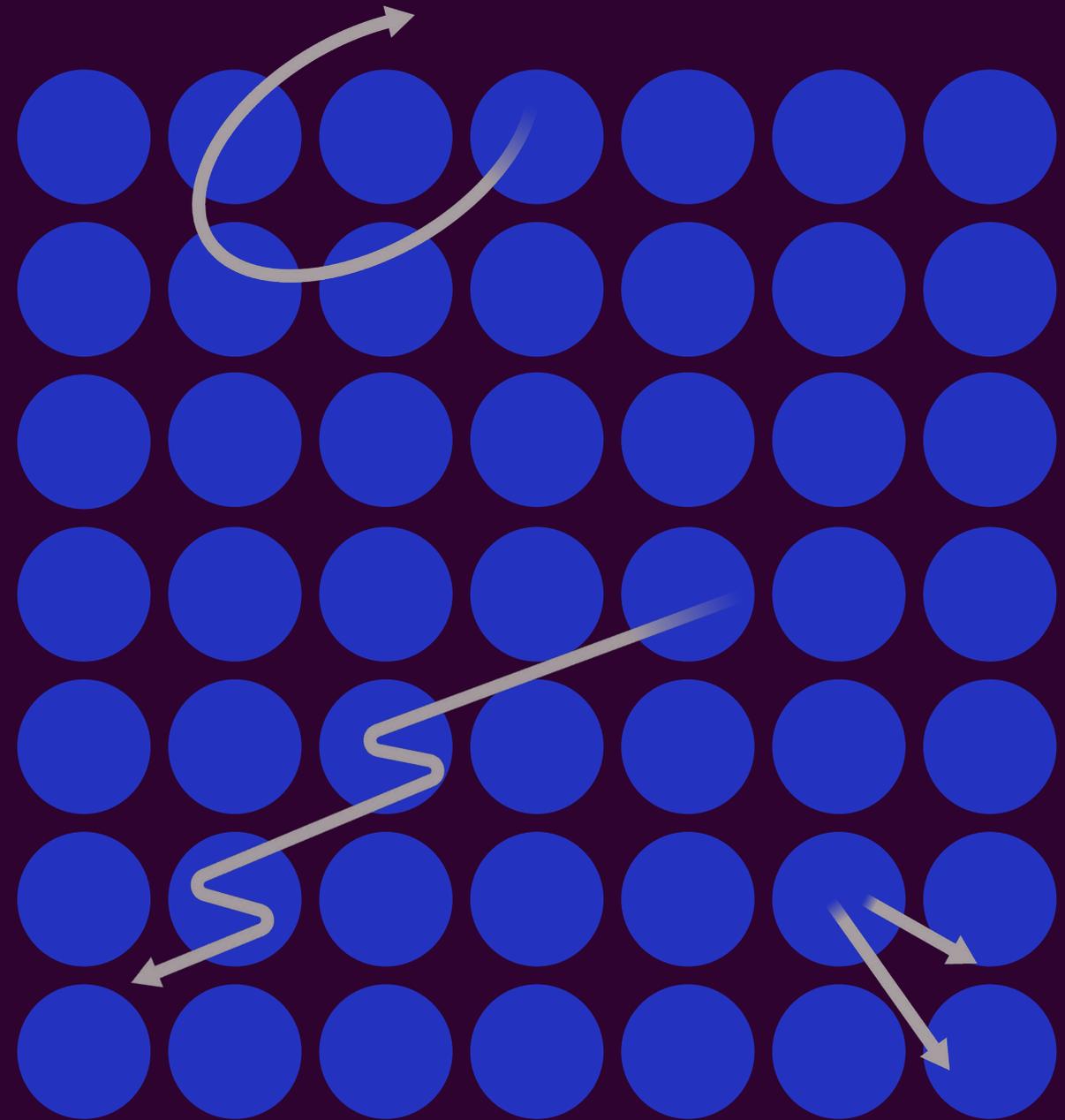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15명 중 10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이야기 한 ‘동이가 고민이 된 섹스’ 자체가 성폭력인 경우도 있었고, 성폭력 피해 이후 달라진 조건에서 성적 실천을 하며 동의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준 경우도 있었다.

	이름(가명)	연령 <sup>2</sup>	하는 일	성적지향	혼인경험
1	서윤	19세	고등학생	이성애	무
2	하영	19세	고등학생	이성애	무
3	서현	19세	직업교육훈련중	범성애	무
4	상지	25세	대학원생, 연구원	이성애	무
5	민정	27세	무직	동성애	무
6	보라	28세	강사	이성애	무
7	현아	29세	변호사	동성애	무
8	현지	31세	기자	이성애	무
9	지영	33세	시민단체 활동가	무성애	무
10	유진	37세	교사	이성애	무
11	다솔	39세	아르바이트, 구직 중	이성애	유
12	나연	41세	무직	이성애	무
13	영미	46세	직장인	이성애	무
14	혜진	51세	강사, 상담원	이성애	유
15	영숙	59세	가사근로자	이성애	유

②

참여자들이  
적어둔 연령 기재.  
출생연도만 표시한  
경우 만 나이 기재.

### 3. 본문



# 1) 연구참여자 참여 동기

## 1 ————— 말하기 욕구

인터뷰 참여자들은 참여 동기로 “혼자서 생각했던 그런 고민의 지점들”(나연), 다른 사람들과 거의 나누지 않았던 성적 경험을 인터뷰를 계기로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한 경험은 친밀한 관계에서 당시에 “동의를 망설였던 경험”(유진)이기도 하고, “30프로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동의”(상지)한 것이기도 하다. 그 순간에는 정말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지만, “100퍼센트 내 의견, 내 주체적인 판단과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되돌아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라는 건가, 그게 친밀함이라는 건가”(영미)에 대한 알고 싶기 때문이다.

동의를 유의미할 수 있는지 대한 질문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게 멈춰”지지도,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즐겁게 행할 수 있”지도 않다는 생각에 “동의 자체에 의문”을 표현하기도 한다(현지).

성적 제안을 하는 남성과 성적 제안에 대해 응답하는 여성이라는 이성애 성적 실천의 관계 구도를 벗어났을 때 ‘동의’가 문제해결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민정).

상처와 후유증이 남은 폭력적 경험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성폭력이거나 “성폭력이라고 딱 알거나 정리가 된 것들이 아니라 애매한 그런 것들”(혜진)을 포함하여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거를 성폭력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았던(..)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편했던 경험들”(나연),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하영)에 대한 것이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라도 “또 뭐가 나올까” 싶을 만큼 다 꺼내지지 않은 경험들이 있다고 말한다(혜진).

참여 동기를 통해 살펴본 바,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와 성적 실천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험이 있으며 그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 상담소 운동에 대한 동참

인터뷰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담소의 운동에 참여하고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동기를 밝혔다. “성폭력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상지) “이 목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좀 이게 어떤 이런 이 성적 동의에 대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운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영미) 등 상담소 운동에 대한 신뢰와 동참 의지를 표현해주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내 경험이 “보편적인 여성들의 경험”(상지)이구나 라는 인식, “다른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데로 주눅들지 않고 힘을 내셨으면”(서운) 좋겠고, “그 나이 또래에서는 나이 많은 편인 내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사람들도 ‘어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맞는거네’라고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영숙)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고 말한다.

여성들의 성적 실천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도 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영미), “한국 여자들이 조금 더 즐기고 살 수도 있을텐데 뭔가 그런 것들이 잘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현지)에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을 높이고 싶다는 의도를 밝힌다. 여성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자기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그 밖의 신청 동기로는 에이섹슈얼 존재에 대한 가시화(지영), ‘동의’를 성애적 실천에서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필요한 언어로 확장하고 싶은 욕구(보라)를 이야기 해주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참여 목적과 상담소의 활동 목적이 일치하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다. 아쉬운 점은 다양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15명 중 다수가 시스젠더, 이성애자, 비장애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경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수자 인터뷰 참여자들의 통찰과 경험을 분석에서 비중 있게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 2) 연애와 섹스에 대한 장소, 규범, 욕망

혼인, 연애, 썸, 데이트는 사회적으로 부추겨 진다. 비연애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기에, 연애와 결혼을 위한 경제적, 외적, 성적 자원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전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도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새로운 장소와 방식을 열어준 데이팅 어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발달해 가고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시장은 2010년 이후 매년 성장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20).

대중적으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성행하며, ‘일반인의 연애’에 대한 너른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다. 연애와 썸과 데이트라는 친밀한 관계의 지극히 현실적인 드라마를 즐기기도 하고, 외모, 직업 등에서 매력적인 여성과 남성들의 세련된 연애 문법의 수행이 전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돈과 섹스’, 즉 상업화 되어 있는 친밀성의 조건과 섹슈얼리티 실천에 있는 불평등과 폭력 문제이다.<sup>3</sup>

③ 김신현경 “데이트 비용은? '썸'만?... 연애 예능이 보여주지 않는 청춘들의 연대” 한국일보 젠더살롱 (2023.02.25.) <https://m.hankook.ibo.com/News/Read/2023022310050000346>

친밀한 관계가 불평등과 폭력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으로 인해 고발된 것이기도 하다.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폭발적으로 드러냈으며,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 및 구조임을 알렸다.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욕망 또한 높아졌다. 가족, 직장, 일터, 연애, 결혼 등 일상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실천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둘러싼 ‘정상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는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의미로 ‘비연애’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임국희 2020), 낭만적이고 소유적인 연애관계에서 벗어나 캐주얼 섹스와 같이 공인된 성적 관계 바깥에서

위험과 안전의 대립을 허물며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찾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상희 2022). 모두 기존의 관계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이다.

에바 일루즈는 성적 몸과 몸 이미지의 섹시함을 가치화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친밀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남성권력이 쥐고 있는 비주얼 관련 산업, 여성 신체의 상품화/물화 및 상호성과 인정과 돌봄과 관계성이라는 인간적인 가치와 모순되는 ‘관계의 섹슈얼리티화’ 경향에서, 친밀성을 둘러싼 규범은 와해되고 행위자들은 거리두고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캐주얼 섹스에 집중한다. 이러한 경향에서 성적 행위자들, 특히 더 자아와 감정에 상처입기 쉬운 여성들의 대응/방어전략은 끝내기, 탈출하기 이다. 이는 때로는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

인터뷰 참여자들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언급하며, 최대한 안전하려고 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관계를 시작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낭만적인 연애 관계와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섹스 그 자체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아니다. 성적 욕망과 실천을 포기하지 않으며 관계 맺고 싶어하고 친밀성에 대해 욕망한다. 동시에 성폭력 위험을 방관하지도 그냥 덮어두지도 않는다. 망설이는 순간들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실천과 관계를 찾아가며, 이전과는 다른 성적 실천을 상상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 1

### 친밀한 만남의 장소들

연구참여자들은 소개팅/미팅, 데이팅 어플, 웹사이트, 블로그, 학교나 소모임과 같은 소속된 공동체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사람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참여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오프라인 장소는 학교, 모임 등 (서현, 상지, 보라, 현지, 유진, 현아, 혜진), 소개팅이나 미팅(다솔, 유진) 사회적 활동 공간(현아, 영숙) 등 이었다. 연구참여자 15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을 만큼,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만남도 활발했다.

10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적으로 관계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서윤과 하영의 이야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얼마나 상호적으로 이들의 인간관계망을 구축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윤은 SNS로 “인맥을 찾아보고” “인맥을 관리”한다.

아는 친구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누군가 태그가 되어있으면 프로필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친구를 건다. 함께 아는 친구가 1~2명 있으면 들어가보고 캡처를 해서 아는 친구에게 누군지 물어보고 신상을 파악한다. 친구를 맺고 SNS 게시물에 여러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를 해보다가 괜찮으면 만나는 식이다.

하영은 친구가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남자를 소개해주었다.

학교라는 오프라인 만남을 위주로만 인간관계가 형성, 확장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계망이 형성된다. 스스로 외향적이고 친구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 서윤은 학교 안에서 친한 친구는 “비즈니스적”인 것이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만 연애하는 ‘넷상연애’를 하기도 한다.

성인 참여자들도 데이팅 어플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지만 서윤과 하영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1:1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한다. 당시의 조건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거나(나연, 영숙), 성소수자 데이팅 어플(지영)이나 트위터에서 같은 정체성과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는 온라인 친목 그룹(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캐주얼섹스나 BDSM 같은 성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나연, 보라, 서현)

2

기대와 욕망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애 및 섹스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해주었다. 해당 이야기에는 참여자 개인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규범과 의미가 담겨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연애와 섹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상성 획득하기

현지는 대학생 때 3개월 정도 3-4번의 데이트가 전부였던 연애 이후 30대에 들어서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전까지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는 점점 연애하지 않는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그 배경에 있다.

“약간 압박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없거나 이런 상황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재는 약간 인간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압박들이 오기 시작했었고”

정상성에 대한 압박은 남자친구를 만나서도 해결되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현지보다 10살이 어려 서로 다른 생애주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지의 어머니는 둘의

연애를 “친구놀이”라고 이야기 한다. 현지 역시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나는 뭘하고 있는건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게 아닐까? 잘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다. 현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결혼 탐색을 전제할 수 없는 연애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인 것이다. 현지는 또래들(정상적)과 다른 본인의 연애 상태를 “실패”라고 표현한다. 한국사회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삼포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한지 오래이고,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업이자 성취이자 성공에 가까운 일이다.

섹스는 즐거운 것

보라에게 “섹스는 즐거운 것이다. 물론 중간중간 폭력적인 일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런 상처 있었다고 평생 안 하나?”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든 말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잡”으며 성적 모험을 해왔다. 보라는 중학생 때부터 전자사전에 성기, 성교 한자 뜻을 구경하는 등 성적 호기심이 많았다. 청소년기 연애를 할 때에는 스킨십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 즐겁고 좋아서, 기회만 되면 자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스무살이 되어 남자친구를 시작으로 “열심히 주구장창” 했다.

섹스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있다. “침대 위에서 그 사람과 몸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평소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나 친밀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웹사이트에서 상대를 구해서 캐주얼 섹스를 하기도 했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침대 위에서는 다 그냥 옷을 벗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런 해방감에 좀 더 섹스는 재밌는 것” “섹스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쾌락으로서 섹스를 즐기고 실천하는 태도는 보라처럼 성적 모험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마주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서 태도 역시 달라지기도 했다. 현지는 대학 후배들이 “신세계”를 열어주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 시기는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함께 섹스토이샵에 놀러 가고 섹스 토이를 선물로 주고 받고 자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즐기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나도 할 수 있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은 섹스를 할 때 임신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이후에야 “좋은 섹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없이 하면 이렇게 편하구나 마음이” 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30대에 여성의 자위에 대해 쓰여 있는 칼럼을 읽고 처음으로 “사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혜진은 성적 “모험”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잡아본 적이 없다. “일부일처제에 아주 충실한 여자”로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섹슈얼리티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 나에 대해 알아가기

인터뷰 참여자들은 성적 실천을 통해서 나에 대해 알아간다. 자신이 성적,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실험한다. 연애와 섹스는 자기에 대한 지식의 형성의 장으로 기능한다.

보라는 캐주얼 섹스든 연애이든 “어떤 관계든 새로운 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에는 최소 한 가지는 나에 대해 알아간다”라고 생각한다. “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작은 부분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영은 무성애자이며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자신의 무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지영은 “무의 상태, 예를 들어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의 음식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없는거죠” 라고 설명한다.

지영은 시스젠더 남성과 연애와 섹스를 하며 남자 성기를 처음 보았다.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물학적 남성과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고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영은 스킨십을 해보니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고 괜찮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친밀성에 대한 기대

인터뷰 참여자들이 연애, 데이트, 썸 등의 실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적인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한 이유는 친밀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로맨스나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유진은 언제든지 남자들은 여자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엄청난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뉴스에는 여성들이 죽는 소식이 많이 들리기에 언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도망쳐야 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냥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 폭력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서운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간쓸개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해서 행복할 때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연애와 섹스에 대한 로맨스를 기대한다.

또 다른 경우로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안정적인 친밀성을 경험하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썸, 데이트, 연애를 한다고 설명한다.

나연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20대 초반에 탈가정하고 서울에서 혼자 지냈다. “원가족과 단절이 되었고 친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많이 끊기고” 하다보니 고립되어 사는 것과 같았고 세상 사는 게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탈가정 하기 전에는 집 밖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나연은 20대 초반에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가족이 그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하영은 고등학교 1학년에 시작해서 2학년 끝나기 전까지 쪽 연애를 해왔다. 2년간 20번 가까이 만났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했다. 그렇게 쉽없이 연애를 한 이유로 하영은 “그냥 허했어”라고 말한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되게 외롭고 옆자리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허한 느낌은 집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하다 보니 내 편은 아무도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영의 아버지는 “가부장적 성향에다가 아동학대를 하는 분”이고 하영의 부모님은 돈 문제, 이혼 문제, 양육 문제 등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싸운다.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도 안 놀러 가고 가족들도 안 놀러 가니까” 이러한 허함은 가족이나 친구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남성에게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 하면서도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아는 성소수자이고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고 커밍아웃을 하면 언제든지 가족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들과는 학업을 위해 청소년시기때부터 떨어져 지내기도 했다. 학업 및 가족사로 잦은 이사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반면 애인이라는 존재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 기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애가 중요하다.

### 획득하기 어려운 정상성

현지는 “연애는 굉장히 남자같은 남자 되게 여자 같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연애시장의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상화되어 있음에 대한 포착이다. 현지의 설명에 따르면 여자같은 여성은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다. 길쭉길쭉하고 잘생긴 애들이 전시장 같은 곳에 와서 놓고, 이를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고” 올리는 비주열적인 전시 행위이기도 하다. 여성들에게 연애가 젠더수행의 장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 끊임없이 ‘새로운 아름다움’이 미디어 등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현지는 구체적으로 아이브의 장원영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예시를 들기도 한다)에서 연애시장의 여성행위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하지만 현지는 그러한 목표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욕구에서도 떨어져 있다. 현지는 본인에 대해 살면서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고 현재도 숏컷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성적”인 옷들- 치마, 블라우스 이런 것을 입어본 적도 없고 “캐주얼틱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아직도 “엄청 똥똥한 하체비만”이라는 것이 콤플렉스이다. 얼굴이 계란형도 아니고 똥똥하다는 것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사귄 때 체중이 정점을 찍을 시기인데 그때 현지는 섹스가 정말 하기 싫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싫고 그냥 내 몸이 나한테 스치는게 싫고. 그런 벗은 몸을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

여성성은 몸,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활발하고 화나면 가서 소리를 지르는 “드센 애”였다. 이것은 “차분하고 전교 1등같은 여자 아이들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이다. “나는 되게 여자답지 못하다 나는 되게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거다”라고 생각했다.

우울했던 삼수를 마치고 대학 1학년 때의 기억은 현지의 자신감을 더욱 깎은 경험이다. 신입생 여학생들과 복학생 남자 선배들간의 사교의례에서 배제되었던 경험 때문이다. 신입생들마다 가지고 있던 카드의 칸에 만나는 선배의 사인을 받고 마지막 선배가 커피를 사주는 것이 규칙이다. 현지와 동기들 7명이 싸인을 받는데, 마지막 현지 순서가 오자 남자선배가 현지 명찰을 밀어내면서 ‘싸인 다 받았지?’라고 하며 현지를 배제했다. “나는 안 예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뚱뚱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울이 더 깊어진 경험이 되었다.

### 성적 터부

참여자들은 여성이 혼인관계 및 재생산 목적 바깥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터부의 영향을 받았다. 스스로 내재화된 인식이기도 하고, 아버지나 연인의 당위이기도 했다. 여성들의 성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신경쓰이는 정도이기도 했다. 생애 속 모든 경험에서 성관계 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아니다. 시대, 주변환경과 조응하며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 간다. 하지만 생애 어느 시점에서 겪었던 성관계에서는 그것이 중요했다고 몇몇 참여자들은 이야기 한다.

영숙은 59세로 연구참여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대학 재학 중 친구 결혼식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그 남성은 집앞까지 데려다준다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왔는데 “그다음부터 (영숙의) 집 앞에 매일 아침부터 진을 쳤”다. 영숙은 “그때만 해도 그게 스토커인줄 생각을 못 해” 봤다. 만난 것도,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남자,

여자가 그렇게 만나면 사고가 나니까 결혼을 해라”라고 했다. 11월 달에 얼굴을 보고 그 다음해 3월에 졸업을 하자마자 24살에 결혼을 했다. 가부장적인 “집에서 탈출하는 방안으로” 결혼을 택하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부부 강간, 외도와 의처증 등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후 이혼을 할 수 있었다.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혜진은 대학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와 가까스로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는 혜진과 같이 잤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다. 이는 헤어지는 과정을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영숙과 혜진에게 주변의 압박이 있었다면 다른 참여자들은 내재화된 시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영미는 첫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삽입까지는 가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었다. “사회에서 허용한 결혼 관계,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성애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제 그런 스킴십이 이루어지고 섹슈얼한 성적 실천이 성적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혼전 순결 교육이나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외에 그걸 벗어나서 자기만의 감각과 욕구를 추구하다가 엄청 비난받고 그 기반을 다 잃게 되고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것을 학습해왔다고 생각한다.

유진은 쑥스러움도 많고 여학교에 있다 보니까 남학생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지만 미팅과 소개팅은 계속 했다.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때문이었다. “순결주의가 좀 있었고 남자를 볼 때 그러니까 남편감을 볼 때 어떤 면을 봐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자주 나눴다. 부모님은 “여자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결혼 후에 남편이 금방 알아본다. 그럼 평생 사랑 못 받는다”와 같은 이야기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않은 삽입이

이루어진 후에 “망쳤다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갔다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성적 죄책감과 수치심이 남았고, 자신이 “정숙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결혼하기 하자가 있는 여성”인 것처럼 가치 하락의 절망감을 느꼈다. 그 이후의 섹스들은 “이미 나는 했고 이미 두 명이나 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파괴적으로” 여겨졌다.

다솔은 결혼하기 전에는 섹스할 때 “엄마한테 혼날 거야, 저 문을 붙잡고 누군가 들어올 거야”라는 생각,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누군가 날 봤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없어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있고 제도가 주는 안정감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되게 당연히 해도 되는 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일 이런 생각이 되게 밑바닥부터”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다.

현지 역시 모텔에는 섹스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내가 비취진다는 게” 싫다. 틴더 등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낙인도 두렵다.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성교육을 돌이켜보면 여성들이 “자기 몸을 보호해야하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과 모성이 강조되었다. 여성의 성 경험은 남성처럼 “자랑거리”는 아니었고, 스스로 “성 경험, 야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기도 했다.

성경험에 대한 터부는 연령이나 상황 등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부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성관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다솔)이나 몸과 재생산에 대한 지식 부족(혜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터부는 시대와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여러 콘텐츠와 사람들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바뀌기도 했다.

### 안전하고 싶음

영미는 해외에서 성적 관계를 여러 번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최대한 나한테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1이라도 들면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영미는 자신에게 성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지만 방향과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느낀다. “대상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는 안전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현지는 한국여자들이 즐기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한다. 현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틴더를 깔았다 지웠다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몰카에 찍힐까봐, 틴더를 하는 여성으로 낙인이 찍힐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적 자유에 대한 욕망이 크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섹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과도 자보고 싶다. 섹스를 즐기고 당당한 여성들이 많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성범죄와 성병, 임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기 어렵다.

안전에 대한 고려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런 고려는 어떤 순간 성적실천을 하지 않는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에 장치를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애와 섹스를 둘러싼 기대와 욕망, 장벽과 터부는 서로 얽혀서 연구 참여자들의 성적 실천에 영향을 준다. 생애에서 지속된 성적 실천에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터부와 장벽을 순간순간 깨기도 하고, 그때와는 다른 터부와 장벽을 만나기도 한다. 기대하고 욕망했던 정상성과 친밀성에 계속 머물기도 하고 다른 욕망과 기대를 만들며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성과 규범성을 배경으로 섹스와 동의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 3) 동의로 질문한 그 섹스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다음의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 성폭력으로 규정되었거나, 아쉽거나 좋지 않았거나 불편했던 경험, 상처받고 우울감으로 남아서 후에 '정말 동의가 맞는지' 질문하게 된 경험이다. '동의'라는 언어로 문제화한 연애, 섹스,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경험들은 상대방의 행위 보다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 섹스와 관계가 왜 문제로 여겨졌는지 질문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은 서로 겹쳐있고 완벽하게 다르다고 분류할 수 없지만, 해당 경험에서 무엇이 핵심적인지 질문하며 분류하였다.

#### 1

#### 협상력을 뺏긴 섹스

상대방과의 동의 협상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섹스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껴진 이유는 관계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인터뷰 참여자가 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보라는 처음에 거절했다가 상황상 수락한 경험이 있다. 20살에 잠깐 만났던 데이트 상대가 2년이 지나 "우리 그때 좋았지 않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연락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며 연락이 왔다.

보라는 상대의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 했고 "그냥 친구 느낌으로" 만났다. 이 사람과 "한번 섹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섹스를 하자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밥을 먹으려고 만난 자리에서 전 데이트 상대는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고 보라는 거절했다. 이에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던 남성은 서울이 아닌 곳으로 운전하더니 가평까지 이동했다.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더니 음주로 운전을 할 수 없다며 모텔에 가자고 했다. 보라는 상황상 갈 데가 없다고 느껴졌다. 모텔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보라는 한쪽 끝 의자에 앉고 상대는 반대쪽 대각선 침대에 앉아 "하면 안 되냐" "싫다" "그러면 삽입 안 해도 되니까 자기 꺼를 애무를 해달라 그 정도까지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왔다 갔다 말이 오갔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는 상냥하고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다. 그러다가 상대가 "너도 집에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라는 "와 맞다 집에 못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 "억지로 해주게 됐고"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대로 모텔을 나온다.

보라의 전 데이트 상대는 보라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이용한다. 처음 상대가 만나자고 했을 때 보라는 자신의 거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가평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말싸움에 붙잡힌 상태에서, 거절은 점점 어려운 것이 되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상황만이 아니라 위계적인 관계일 때 자신의 의사대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서현은 중학생 때 같은 운동부 1년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 소속된 운동부는 별개의 공간에서 소수만 훈련하는 곳이라 밀폐되어 있었고 코치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게다가 운동부는 "선배들보다 기록이 더 잘 나오면 맞"아야 하는 "텃세가 진짜 심한" 곳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부조리를 했던 사람이었고 좀 무서운 선배"였다. 그렇기에 텃세가 심한 선배들이 서현을 "못 건드리게 딱 막아"주는 존재였다. 이렇다 보니 서현에게

선배와의 연애는 “을의 연애”였다. 상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줬고” 상대가 서현에게 시키는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든 외박을 해야 하는 것이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상대가 체육관이나 골목 등에서 스킨십을 할 때에도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아무도 없잖아,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면, 아무리 상대가 조곤조곤 이야기 해도 “어, 싫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체육관이나 으스스한 골목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는 무섭고 두려웠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절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장소가 다르게 경험되면서 “체육관에 들어가기가 좀 무서워”졌고 서현이 운동부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서현이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상대와 헤어지면 “2학년들의 부조리를 막을 만한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헤어지게 되면 선배의 부조리가 “나한테 돌아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서현은 상대가 졸업할 때까지는 “육상부에서 좀 평온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싫어도, 조금 힘들어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힘 있는 선배와의 연애는 서현이 다른 선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불편함, 두려움, 하기 싫음을 억누르고 상대의 말대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연인관계에서의 성적 협상에는 관계 맥락이 함께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현의 사례처럼 그것이 하나의 위계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다중적인 맥락과 감정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아는 심리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위계와 경계를 알면서도 감정이 생겨서 시작한 연애였지만, 현아는 “시작부터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한다. 상담사는 현아에게

“우리 관계 되게 위험한 관계이고” “신고당하면 큰일 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현아 역시 내담자인 자신의 위치보다는 상담자인 상대방의 위치에서 “우리 관계가 상담자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고 수긍했다. 현아와 상대방은 당시 오래된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아는 각각의 연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폴리아모리 형태의 관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는 폴리아모리 제안을 기존 애인에게 하지 못했고, 현아와 상대방은 “그냥 바람피는 사이”가 되었다. 상대가 결국 기존의 애인과도 헤어지게 되자 현아는 스스로가 “되게 미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위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폴리아모리 관계는 현아에게 상대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감정적 부채감으로 연결되었다.

동성애 관계였던 둘의 데이트는 주로 실내에서 섹스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상대가 “엄청 벽장”인 데다가 현아와 애인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는 주로 집이나 만화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집에서 하는 데이트는 자주 섹스로 연결되었다. 섹스는 대체로 상대방이 제안했고 현아는 대체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감정적 부채감은 수락 외의 선택을 하기 어렵게 했다. 어떤 날은 “나 때문에 전 애인이랑 헤어졌다는 것이 미안해서” 수락하고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다. 폴리아모리를 유지하는 한 “상대방한테 (나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잘못하는 것” 같았고 “거절하면 또 어떤 잘못을 하는 걸로” 느껴졌다.

## 2 ————— 연애/결혼 관계에서의 해야 하는 섹스

이성애 연애 및 섹스 관계에서 성적 제안과 수락/거절은 성별화되어 있다.

섹스의 시작과 계획을 주로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이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내가 하겠다고 했고 내가 결정했지만” 자신의 몸을 살필 여유, 장소 등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이 없는 채로 짜여진 판에 합류하게 된다. 대체로 남성 연인이 제안하고 여성들이 참여했고 이후 고민으로 남은 섹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연인이니까 해야한다’는 당위가 있었다고 말한다.

다솔은 대학에 들어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3년 정도 만났는데 3년 만나는 내내 늘 관계를 요청하는 쪽은 남자친구였고” 다솔은 “그냥 응하는” 쪽이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미루고 미뤘지만 사귀지 50일이 되는 기념일 날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특별한 이벤트처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 그렇지만 위생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몸에서 나왔던 피나 이런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통증도 심했다. 몸에 그 느낌이 오래 남았다. 다솔은 “팩트로 봤을 때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동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밑면에는 내가 정말 관계를 맺고 싶어서 혹은 내 욕구가 있어서라기보단,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이 원하는 섹스를 응하게 되는 연애 각본을 인지하고 짚어냈다. 영미는 손이나 입으로 “직접 성기에 닿거나 접촉하”는 것이 “되게 싫었”다. 그러나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강요가 일어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약간 의무감”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학습이 돼서 남녀 관계에서 그냥 이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인가 보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한창 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 안해 안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좀 무례한 것” 같았다. 영미는 성기 삽입 대신에 입이나 손으로 “마무리”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다솔은 남편이

“요청하는 것은 곧 동의를 해야 한다”와 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스킨십만 하고 싶었지만 내가 스킨십을 시작했으니 “해야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남편이 거절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지 않지만, 거절 자체가 미안하다.

영미와 다솔은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의 성적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무례를 저지르는 것 같은 부담감과 미안함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감정적 부침은 두 여성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트만(2021)은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한 여성의 거절이 여성에게 고통을 유발하며 여성들은 ‘무례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느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수치와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남성의 성적 욕망에 여성이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이자 각본이기 때문이며, 남성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영미와 다솔의 파트너는 강요도 하지 않고 불편감도 비추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특권과 각본의 영향으로 영미와 다솔은 압박감을 느낀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인이니까 하는 섹스는 관계 내에서 패턴을 갖게 되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곧 일대일 섹스를 약속한 사이가 되는 것과 같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산에 가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과 섹스가 한 세트가 되(헤진)”어 정례화된 일이 되었다. 현지에게도 섹스란 남자친구와의 “재밌는 놀이”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다. 실제로 횟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가 “한 달에 한 번만 섹스해도 괜찮은 사람”인 반면 남자친구는 “2주를 못하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섹스를 한다. 현지는 남자친구와의 섹스에 대해 동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섹스는 아니지만 “해야 되는 섹스”라고 이름 붙인다.

주도권이 없이 패턴화된 섹스는 관계의 상호성을 줄이고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물화되는 경험을 남기기도 한다. 다솔에게 남자친구와 첫 섹스

이후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다솔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가는 것 자체가 곧 섹스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솔이 “내가 내려갈게 해서 만나면 좀 뭔가 다른 곳에 데이트하는 곳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관계를 하러 온다고 생각”했다. 섹스하기 싫거나 임신이 신경 쓰이는 시기가 되면, 내려가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사귀는 동안 싸움의 주제는 대체로 섹스였다. “내려와라, 내려오면 관계를 한다는 거고 그걸 거절하면 왜 안하는거냐”로 이어졌고, 일상 속 대화들은 자주 섹스로 귀결되어 압박으로 다가왔다.

혜진의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었고 공부하느라고 항상 바빴다. 그가 “잠깐 시간이 날 때 만나는 게” 데이트가 되었다. 데이트 비용도 혜진이 냈지만 “애가 기죽을까 봐” 신경쓰느라 돈을 쓴다고 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 남자친구는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혜진의 자취방에 와서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그러고 나서는 “밥을 먹고 항상 섹스를 원했”다. 게다가 이 연애는 혜진이 성폭력 피해 이후 “힘이 하나도 없던 시절”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혜진은 거주지도 옮기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몸이 좋지 않았다. 겨우 학교에 다니며 관계도 거의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 혜진은 그 당시의 주도권 없는 섹스와 관계를 “버려진 느낌”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해야 하는 섹스에서 폭력은 때로 감춰진다. 연인이라는 근거로 성관계가 폭력적으로 이뤄진 후 로맨스 서사 안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유진은 대학생 때 만났던 남자친구와 처음 했던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진은 “이거 벗고 싶지 않다”, “성기를 넣고 싶지 않다” 말했지만 상대는 “안 넣을게 약속할게”라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삽입을 했다. 유진은 그 다음날 걸기 어려울 정도로 몸에 타격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절하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당시 남자친구는 유진을 업어서 하숙집에 데려다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달래고 다음 날 무릎을 꿇고 빌고 반지를 주며 “결혼하자”고 제안한다. 상대 역시 유진의 여성으로서의 정조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관계적 책임을 약속함으로써 무마한 것 아닐까.

영숙은 남편이 술에 취해 “달려들” 때마다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시계만 쳐다보며 “한번 대주고 말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한 달 이상 다시는 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자주 해봐야 한 달에 두 번” 섹스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아내는 언제든지 섹스를 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을 “한 번씩 확인”했다. 영숙은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으면서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린아이 비유를 들며 자신이 “사람 취급 받지 못했다”고 표현한다.

### 3 기대와 다른, 섹스만 하는 관계

나연은 동의가 고민이 되었던 경험으로 연애뿐 아니라 썸타는 관계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있었고 클럽이나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삽입 섹스에 대해 거절해도 계속 요구받는 경험이 반복되었다.

채팅어플에서 만났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썸을 탔던 이 남성과는 늘 모텔 근처에서 만났다. 나연은 서울에, 해당 남성은 인천에 살고 있었지만 한번도 서울에서 만난 적은 없다. 상대의 일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모텔촌 근처 역 출구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섹스를 하고 둘은 바로 헤어졌다. 영화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여행에 함께 간 적이 있지만

삽입 섹스를 거부했던 나연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해”라는 말이 압박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나연은 단지 ‘섹스만 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우리가 섹파같은 관계니까 자기는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만나겠다”라며 관계의 종료를 고하며 말했다. 나연에게 섹스는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과 같았다.

이는 나연이 기대한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함과 거리가 있었다. 가족, 친구와 단절된 상태에서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필요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던 채팅은 나연에게 익숙한 관계 맺기 방식이었다. 나연은 어플을 할 때에도 “섹파 구합니다”라고 쓰여있는 사람은 걸렸지만,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결국은 “채팅으로 나온 여자니까 섹스” 이 생각을 하고 나왔다. 대화를 오래 해보고 뭔가 진지하고 뭔가 코드가 맞고 프로필에 길게 써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지만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다.

하영은 친구에게 동갑 남성을 소개받았다. 그 친구는 이 남성을 게임을 하다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영과 동갑 남성은 3주 정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 “너 학교 어디 다니냐, 어느 쪽에 사냐, 소개해준 애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 “취미가 뭐냐” 이야기 하다가 “우리 좀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라고 대화가 이어지게 됐다. 하영은 “나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가 아니더라도 친구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귄 수 있겠다구나 생각하며 자리에 나갔다. “그쪽”으로는, 성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만났을 때의 상대방의 태도는 달랐다. 만나자마자, 그리고 만화카페 안의 방에 도착해서도 추행이 이어졌다. 왜 그러냐는 말에 상대방은 “하자는 거 아니었어?” “너도 따라오면 하자는 거잖아”라고 응수했다. 해당 남성은 이 만남을 ‘섹스 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나연은 상대와 연애 관계를, 하영은 상대와 연애나 친구 관계를 생각했지만 상대 남성들은 섹스만 하는 것을 기대했다. 나연은 이런 관계를 “처음 스타트가 모텔이 되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는 관계”라고 이름 붙인다. 나연은 처음 만난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섹스를 하면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오늘은 뭘 할지 이야기 하지 않고, 영화가 보고 싶다거나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그거 생각하고 나왔는데 너도 그거 아니었어?”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런 관계에서 나연은 자신이 “부르면 아무 때나 섹스할 수 있는 사람” 취급 되었다고 느꼈다.

많은 이들이 연애나 결혼에서의 소유적, 독점적, 낭만적 친밀성을 원하지 않아 섹스만 하는 관계를 하기도 한다. 성적 즐거움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다. 틴더 등 어플에서 캐주얼 섹스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남성들 중에 HPV 백신을 인증하는 등 자신의 무해함과 준비됨을 어필하기도 하고, 여성들도 낭만적 연애 관계와 거리두고 섹스를 목적으로 자기 지식과 욕망을 확장하고 위험과 안전을 관리하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체성을 발휘하며 사람을 만난다(이상희 2022).

그렇지만 나연은 섹스만 하는 관계로 해당 만남들을 합의한 적이 없었다. 나연은 스스로가 당시에 “취약하고 암울하고 아무 기반이 없을 때”였고 “남자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되게 서투” 르기도 했다. 또한 나연에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한정적이기도 했다. 가족, 친구 등 가깝고 지지적인 관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적 자원이 취약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썸이나 연애에서 기대되는 감정적, 상호적인 교류, 형식과 서사 없이 상대의 욕망을 기준으로 섹스만 하게 될 때 그것은 성적 대상으로만 환원되는 경험이 되었다.

아무리 상호 합의한 캐주얼 섹스라고 할지라도(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섹스 실천의 장에 있는 섹슈얼리티 위계는 존재한다. 보라는 남자친구와 서로를 독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섹스만 하는 관계가 하고 싶어서 웹사이트에서 섹스파트너를 구하곤 했다. 보라는 캐주얼 섹스 파트너들이 유사한 태도가 있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이런 관계면 이 정도는 너가 각오하고 온 거 아니냐’는 태도로 “다소 무리한 거를 요구”했다. 보라도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있었지만, 모텔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상대 남성이 소문을 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리한 섹스를 하기도 했다.

나연은 성적 대상으로만 환원되는 느낌을 사회의 다른 성적 위계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것은 “성매매하는 기분” “성봉사하는 기분”과도 같다. “데이트 비용을 막 낸다거나 뭔가를 계속 지불하면 저는 그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돈을 썼으니까 내가, 저 사람도 이 정도는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성 봉사하는 기분은 “동등하게 (돈을) 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저것 요구하는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연은 이러한 위계를 변화시켜보려고 여러 노력을 한다. 상대 남성이 지불하면 뭔가 해줘야 하는 갑을관계가 불평등하게 느껴져서 평등해지려는 노력(“모텔까지 왔는데 아깝게 왜 아무것도 안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모텔비를 같이 내본 적도 있지만 “같이 낸다고 해서 평등한 게 아니더라고요”)을 해보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평등한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4

**‘나의 욕망’이 배제된 섹스 각본**

현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게 멈춰져?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즐겁게 행할 수 있어?”라고 질문한다. 현지는 이것이 회사의 상사 부하

직원간의 권력 관계 등 일상의 맥락의 이야기이고 성적인 관계에서 제기된 고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역시 마냥 즐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의 성적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동의한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섹스를 할 때 여성이 무엇을 재현하고 수행하게 되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성애 섹스에서 자신이 포르노나 야동을 재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현지에게 섹스의 이미지는 일본 야동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여자가 누워있고 남자가 타고 여자가 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다. 영화에서 여성들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남자가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서있는 그런 모습들, 남성의 시선 아래에 있는, 시선의 대상이 된 여성이 생각한다. 그때의 여성들은 휘둘리고 있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즐겁다기 보다는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며, 통제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현지는 일반적인 성관계에 대한 몰입을 하면 통제력을 상실한 섹스로 이어질 것 같아 몸에 힘을 주고 오히려 쾌락을 배제한다.

반면 현지가 생각하는 주체성이 있는 여성은 섹스할 때 남성의 위에 올라가 있고 대화도 많이 이끌어가고, 여기를 좀 더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 여성들은 자기의 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건강한 섹스, 안전한 섹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진다. “성욕이 차올라서 관계를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다.

유진은 섹스를 하는 순간순간 무언가 고민이 될 때, 포르노나 영화 장면들을 떠올렸다. 유진은 “그만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동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혀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위 중 중단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섹스를 할 때 상대 남성이 사정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늘 남성의 사정으로 끝나곤 하는 포르노 영상이 참고가 되었다. 유진은 성적 쾌감과 즐거움을 구분한다. 상대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일반적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던 섹스에서 유진은 잠깐의 성적 쾌감만 있었다. 하지만 모텔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에서, 쫓겨나야 하는 시간에 대한 생각 없이, 헌신적으로 느껴지는 자세와 긴 시간을 들여 전회가 이루어졌던 섹스에서는 즐거움을 느꼈다.

두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디어와 포르노 속에서 일반적인 섹스 장면에는 섹스에서의 체위, 여성이 수행하는 신체 이미지, 시선과 구도가 정형화되어 있다. 전희-삽입-남성의 사정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으며 여성의 참여 수준은 반응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섹스, 적극적인 의사소통도 거의 없이 남성의 만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섹스에서 여성의 욕망이나 의지가 반영될 여지도 적고 즐거움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유림(2020)은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소개하며 “쾌락의 주어에 ‘남’이 아닌 ‘나’를 기입하는 일이기에 “오르가즘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오르가즘을 경험한다고 답한 이성애 남성은 95%이나 이성애 여성은 65%”이고 “이성애 남성 다음으로 게이 남성이 89%, 바이섹슈얼 남성은 88%, 레즈비언 여성은 86%, 바이섹슈얼은 여성은 66%”였다.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즐거움과 만족의 차이가 성적 칭찬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 등의 대화를 하는지, 얼마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자신의 욕망이나 환상을 실현하는지 등의 차이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현지가 말한 자율성이 있고 주도권을 가진 여성의 모습과 가깝다.

즐겁고 만족한 섹스가 곧 동의한 섹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즐거움은 동의를, 동의는 즐거움을 들여다보게 하는 렌즈이다. 동의는 몸(욕망과 감각)과 머리(판단)에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며(영미), 어떤 순간에는 몸을 머리가 따라가기도 한다(영미). 남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구도화된 섹스에서 여성들은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과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즐겁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 즐거움과 쾌락이 누구의 것인지 묻게 되기 때문이다.

## 4) 혼란스러운 동의, 문제는 관계 : 동의 찾아가기

이번 파트는 혼란스러운 동의 경험 가운데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생애 속 동의가 고민된 경험들은 자기정체성,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법, 사회규범과의 연결 지점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동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가를 같이 질문하게 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동의는 관계 바깥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만 의미 있다고 말한다. 이는 yes/no 중심의 매뉴얼적 약속으로서 '동의'라는 상식과 대조된다. 관계를 통해 찾아가고 성찰을 통해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동의에 대한 여러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1 ————— 적극적 합의로 섹스 구조화하기

유진에게 성관계는 “자해와 성욕과 성적수치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부모에게 결혼에 적합한 여성의 몸은 순결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유진에게 혼전 성관계는 “정숙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결혼하기 하자가 있는 여자”가 되는 행위로 여겨졌다. 완벽한 여자는 “순결을 지키고 성관계한 사람이 남편 한 사람밖에 없는”여성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연인 관계 내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비밀”같은 성적 친밀함을 만드는 과정으로 잘 해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이미 나는 했고, 이미 두 명이나 잤고”라는 체념과 죄책감과 수치심,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존재했다.

양가적인 마음은 성관계에 대해 몰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학적인 방식으로 몰두하게끔 했다. 유진은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강제로 했던 첫 성관계의 후유증으로 인해 종종 성관계를 도중에 중단했다. 성관계를 너무 밝히는 모습을 보면 결혼 상대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성관계가 죄책감이었듯이, 상대에게도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독점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전 애인을 불러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신 걱정을 하는 유진에게 “내꼴로 덮겠다”며 동의도 없이 질내사정을 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에도 내 몸은 “이미 망쳤다”는 생각에 화를 내지 못했다.

유진이 기존의 성관계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 건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경험하고부터였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삽입과 사정 위주가 아니라 긴 스킨십과 전회, 존댓말을 해주고 보살펴주는 태도는 짧게 지속되는 쾌감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후 유진은 새로 맺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나를 존중하는 방법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절차들을 만들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관계할 날짜와 장소, 애무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 미리 상의했다. 여러 장치에도 불구하고 삽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섹스들은 지루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했지만 유진은 열심히 “노력했다”. 동의에 대해 결정적으로 좌절한 것은 성폭력 경험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내 철학에 공감하는 척하고, 성관계도 내가 정해놓은 단계대로 따라와주는 척”했던 애인이 잠든 틈을 타 성폭력을 했을 때 유진은 성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촘촘한 절차들이 “소용 없다”고 느껴졌다.

“이 사람이 받아줄까?” 막 이런 조바심도 많이 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그동안 내가 있었던 관계들이 좀 자학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 하는 그 갈등을 계속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친구랑 성관계할 날짜도 정하고, 나는 어떤 성관계였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모텔은 싫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정하고, 성관계 전에 이제 좀 음악도 틀어놓고, 간접 조명을 켜 상태에서 좀 서로 몸도 만지고 이렇게 바로 누워서 성관계하고 싶지 않고 좀 옷을 벗고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그다음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도 다 정해놨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잘 때 그것도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유진은 그러나 적극적인 합의가 무용하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좌절했던 적극적 합의에 대한 시도는 “나만의 의지만 있으면 안되는 거였구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나아갔다. 현재 애인은 최초로 말로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직전 관계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와중이라 조심하는 편이며, 처음으로 비혼인 걸 밝히고 만나기 시작한 관계이기도 하다. 현재 남자친구는 성관계 도중 이전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유진이 경직되거나 불안해지거나 아파하면 “바로 멈추는 사람”이다. 성폭력 사건 후유증으로 삽입 시 어려움이 종종 생기는 데 그럴 때 유진은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흥분한 척하고 삽입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건 오랫동안 몸에 새겨진 버릇” 같은 것이다.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라면서 상대방의 몸을 살피고 도중에 멈춘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성관계 시 망설임이나 신체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이전 남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유진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련의 경험들에서 유진에게 결혼과 여성의 가치에 대한 생각도 변화해갔다. 유진은 “결혼 상대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스스로에게 수천 번” 내리면서도 결혼, 임신, 출산은 해야하고 그것을 사랑이 가능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서서히 결혼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결정적으로는 “평등한 섹스”와 결혼을 전제로 한 ‘공평한 관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성폭력을 했을 때 결혼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신화적인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허물게 되었다. ‘이런 거라면 결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순간, 결혼제도와 결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지금은 “결혼 안 해도 되고 임신, 출산 안 해도 되고 친구 같은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유진은 성폭력 사건 이후 섹스할 때 ‘결혼 상대자로서 부적격’이라는 잣대가 ‘성폭력 피해자 답지 않다’는 잣대로 바뀌기도 했다고 말한다. 여전히 유진은 ‘섹스하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잣대와 씨름 중이다. 하지만 유진은 결혼, 사랑, 섹스에 대해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섹스를 재구조화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찾아간다.

## 2 ————— 30%의 동의도 동의일까? 페미니스트, 동의와 씨름하기

상지는 주로 학생회, 페미니즘 관련 단체 등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상지는 남성과 연애를 해왔는데, 대부분 페미니즘이 스스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지에게 주요한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적 실천에서도 동의 묻고 답하기는 어색한 일이 아니었고, 상대 남성들은 여성의 비동의가 중요하다는 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미투운동을 마주하며 대학 내 페미니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고, 상지가 속한 공간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 함께하면서

성폭력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상지는 “공론화 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남성”들도 적지 않게 만났다. 동의는 “중요한 애무, 삽입 직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돌이켜 생각하면 이때의 동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다 할 수 있게끔 해놓고서 ‘근데 너 신고 안 할거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상지에게 이는 자신을 존중하기 보다는 상대 남성들 스스로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된 것 같아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손 잡아도 되냐? 포옹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은 “썩맥 같고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괜찮아 너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라는 말은 때론 “지겨웠다”

때문에 최근 사귀는 남자친구와는 명시적 동의 말고 다른 방식을 합의해 나가고 싶었다. 상대방도 ‘받아내는 식의 동의’가 “매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의 섹스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둘 간의 언어와 즐거움을 합의하고자 했다. 상지는 파트너에게 “조금은 폭력적이어도 그런 걸 재밌어 한다는 걸 인지시켜줬고” “동의 없이도, 하기 싫다고 말해도, 그러니까 뭘 지금해~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멈추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가는 ‘가벼운 거절을 무시하는 섹스’를 하기로 합의했다.

같이 살지 않고 밖에서 만나 데이트할 때는 “당연히 오늘 하게 되면 해야지, 또는 하게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예상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시그널을 안주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반동거 상태가 되면서 “다양한 시간대나 다양한 상황”에서 섹스가 시작되었고, 이런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 섹스가 계속되자 “동의 한 건가 안 한건가 헷갈리게” 되었다. “30%만 하고 싶을 때”도 하게 되고, 상대방은 좋아하는 줄 아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상지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내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나?” 고민하게 되었다.

상지는 상대방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역할극으로서 ‘비동의 섹스’를 실험했다. 그러나 현재 섹스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부담될 때 일상에 수시로 끼어드는 섹스를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 질문이 생겼다. 또 “힘쓰는 남성, 당하는 여성”이라는 이성애 섹스 구도에서 처음에는 쾌락이었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진 성관계가 폭력의 가능성을 만들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정확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지금은 하고 싶은지 여부를 정확히 말하는 것으로 합의 내용을 변경했다.

실제로 상지가 맥락적인 동의를 합의하고, 의도된 ‘비동의 섹스’를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 남성이 “나를 엄청 존중해주고 페미니즘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상지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관계가 변화하면서 “30%의 동의도 동의라고 할 수 있나?”는 질문을 하게 된다. 동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치관과 관계 윤리의 영역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적 협상은 관계에 영향을 받아 매번 변화되는 조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위의 영역이기도 하다. 상지는 이 과정에서 관계가 놓인 상황에 따라 “동의를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변화된 조건을 상호 확인하고 새로운 합의 내용을 만들어갔다.

### 3 ————— 계약서가 보장하지 못한 것

지영이 첫 연애를 한 남성은 무성애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고려해주고, 페미니즘이나 인권 관련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루는 상대 남성이 “손잡고 싶다, 팔짱끼고 싶다, 어깨동무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지영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스킨십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제안해 왔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스킨십의 강도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이야기해나갔다. ‘손 잡기 제안은 한달에 몇 번’, ‘키스는 언급 불가’ 등 구체적인 문항들이 도출되었다.

이후에도 스킨십 계약은 잘 지켜졌다. 처음으로 단둘이 있었던 호텔에서도 상대방은 성실하게 동의를 구해왔고 “어쨌든 너와 나는 그런 (섹슈얼한) 관계를 맺지 않는 사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양가감정”이 들기도 했다. 데이트를 하면 동의를 “하루에 열 번 가까이 끊임없이 물어봤다” “스킨십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손잡는 거를 동의했다고 해서 그다음 손잡는 것도 동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맞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동의 구하기는 “귀가 피로하다”고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묻지 않았으면 “그것도 빠졌을 것 같”았다.

무성애자인 연인과의 관계맺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는 유성애 중심 사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새롭고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스킨십의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스킨십 계약은 지영보다는 상대남성의 필요와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는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어 가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때론 피로감도 불러왔다.

지영과 상대 남성과의 관계의 종결은 계약서상 동의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됐다. 지영에게 있어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거리”인 싸구려 숙박업소를 상대 남성이 데려가자, 관계에 크게 균열이 갔다. 애인은 좋은 호텔에서 “같이 있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여러 숙소를 전전하다가 가장 싼 모텔 방을 선택했다. 지영은 나보다 성 경험이 많은 상대 남성이 주말 시간대 좋은 방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싸구려 모텔’을 데려간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영은

불법촬영물에 등장하는 모텔은 하나같이 싸구려 모텔이더라 라는 댓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다. 지영에게 있어 연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해 숙박업소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은 이유였다. 이후 데이트에서도 눈에 띄게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지영은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 먹는다.

관계의 위기는 가장 말끔한 형태의 합의인 계약의 미이행이 아니라 상호성의 미이행으로부터 왔다. 지영은 연인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아프면 반차를 내고서라도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돈과 에너지를 써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지영에게는 이것이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이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지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잘보이고 싶은 마음에 지영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맛집을 예약하며 “태도와 성의”를 보여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영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헤어짐을 결정하게 된다. 지영의 이야기는 계약서가 보장하지 못한, 계약서가 다 담을 수 없는 관계를 질문하게 한다.

#### 4 ————— 문제해결 언어로 채택되지 않은 ‘동의’, 해결의 열쇠는 ‘관계’

민정은 레즈비언이고 스스로 부치라고 정체화한다. 부치,팸은 레즈비언의 성별표현 및 젠더 수행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이다.<sup>4</sup> 민정에게 부치란 “여자에게 잘하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톤앤매너가 나이스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다. 민정은 자신과 애인 모두 부치-팸 수행을 일상에서 잘 수행하고 좋아한다고 말한다.

민정은 온택팸인 상대방이 조르고 온킵부치인 민정이 거절하는 양상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되며 동의를 고민하게 되었다.<sup>5</sup> 민정과 애인은 동거 직후부터 섹스를 이유로 갈등이 시작됐는데, 섹스는 스스로의 정체성, 관계의 확인, 연애규범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민정은 섹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만 “섹스를 즐거워서 하는 건지 그 남성성 수행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다. 또 민정은 섹스를 쾌락보다는 관계의 안정감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어 왔다. 이전에 캐주얼 섹스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레즈비언 연애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성적 실천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애인과는 장기적이고 만족스런 관계를 쌓아가며 정체성의 인정, 관계의 확인에 대한 욕구가 많이 충족되었다.

4

부치는 복장, 말투, 몸짓 등에서 소위 남성적인 방식으로 성별 표현을 하고 이를 편안하게 느끼는 레즈비언을 가리킨다. 팸은 이른바 여성적인 성별 표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이를 편하게 인식하는 레즈비언이다. 그런데 부치, 팸이 반드시 한 개인의 성별 표현 방식으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성관계나 연애 관계 내에서의 능동적 수동적인 역할 구분과 관련해 자신을 부치, 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인터뷰이의 정체성 및 애인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언어로 해당 내용이 언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15)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지지자가 궁금해 하는 것> 참고

반면에 애인은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평소 다툼이 있으면 ‘재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찌지? 이 집 계약은 민정이 했는데, 쫓겨나면 본가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반복된 섹스제안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섹스를 통해 연인임을 확인받고 싶기도 했다. ‘사귀는 게 아니라 가족인 것 같다’ ‘데이트하는 관계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는 말은 연인으로서 성적인 매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5

여기서 김, 텍은 성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말한다. 주로 레즈비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제공하는 쪽을 김(give), 행위를 받아들이며 즐기는 쪽을 텍(take)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x 색다른 의원(2023) <색다른 토크하세어 03 : 항문섹스도 인권이다!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 참고

민정이 이 문제를 규정하기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연애규범으로서 섹스 요구가 이해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다른 주제의 일상적 갈등에서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훨씬 쉬웠는데 유독 성적인 것에서는 ‘아 내가 잘못된 건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다른 일상적 갈등에서는 어떤 요구가 이해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거절/설득했고,

받아들여졌지만 성적제안은 “하기 싫어”라고 했을 때 “오케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어려웠다. 두 번째는 “여-여 관계이다 보니까 헤테로 커플보다는 권력관계가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성폭력 피해자는 팸이고 가해자는 주로 부치인 경우”가 많았고 “부치와 팸이 아니라 이게 반대였다면 훨씬 더 티피컬한 경험일텐데 더 여성적인 사람이 요구를 하고 더 남성적인 사람이 거부를 하는”상황이 해석하기 어렵게 느껴졌다. 친구들도 같은 해석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해결하는 방법도 고민되었다. 거듭된 갈등과 끈질긴 제안 속에서 ‘이게 폭력인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자신은 대학원생이고, “이 경험이나 언어들을 이렇게 말끔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애는 그렇지 않으니까” “애초에 이 관계를 어떻게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게 한편으로 폭력이 될까봐” 동의를 문제해결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동의협상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민정은 애인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상호 발견하고 협의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내가 매력이 없나?’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고 이게 계속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섹스를 안 해주는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애가 자꾸 자신의 성적 매력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게 문제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구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로 나아가는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민정에게도 거절의사를 무시하고 끈질기게 조르며 괴로움을 주는 상대방의 행위는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인가?’ ‘제대로된 동의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 ‘이것이 동의일까?’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이것이 괜찮은 성관계인가? 라는 성찰적 고민을 포함한다. 그런데 민정은 ‘동의’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동의’ 담론이 주요하게 문제제기하는 권력이란 성별권력이며, 이성애 각본상 제안하고 설득하고 조르는 남성 섹슈얼리티와 거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애 중심 담론으로는 민정의 경험을 설명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권력은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았고, 집의 계약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대화의 주도권과 지적권위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 여러 권력의 다양한 층위가 개입하고 이를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었다.

또한 ‘당신의 행위는 제대로 된 동의 구하기가 아니며 폭력이다’라는 비판이 관계를 지속하고 ‘나아지게 하는 미션’을 가진 상황에서는 민정에게 문제해결에 맞지 않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민정에게 ‘동의’는 관계 안에서 서로의 욕망과 행위를 조율하는 언어이기 보다는 폭력을 문제제기하는 언어로 여겨졌다. 관계 맥락에서 행위만 떼어놓고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았고, 성폭력 문제제기에 담겨 있는 무게감과 부담도 고려되었다. 민정의 고민은 동의가 다양한 성적 상호작용과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힘 있는 언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의 쟁점 이면에 관계가 있다는 발견은 민정의 이야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으며,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찰이다. 동의가 보장하는 존중감, 신뢰는 표면적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동의에 대한 고민은 성폭력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에 대해 고민된 경험들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과 언어들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든 경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수락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에 대해 동의한 것인가’ ‘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왜 수락했는가’ 등을 질문한다. 무엇이 성적 폭력인지, 성폭력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며 성적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 1 ————— **담론, 지식, 상담/조력을 통한 성폭력 명명**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라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페미니즘 담론, 주변의 지지,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개념 변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재개념화와 재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유진은 여러 번 재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직장 동료로부터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2008년에 겪었던 일을 2021년에 성폭력이라고 해석한 일이다. 동료는 “네가 억울한 건 당연한 거고 네가 받는 거는 성차별이 맞고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줬다. 그리고 “네가 당한 건 성폭력이야”라고 알려주었다. 그 전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었던 경험에 이름을 붙이면서 시원하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동료를 만난 이후 여성에 대한 여러 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으로 명명되면서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것도 성폭행이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잠 든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삽입을 했던 경험을 헤어지고 나서야 ‘강간’임을, 피해자 지원 기관에 상담하면서는 ‘준강간’이라는 법적 피해 유형에 해당함을 알게 됐다.

유진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경험을 재정의한다. 유진은 “(아프다고) 얘기해도 계속 조르고,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뭔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계속 자기 성기를 부비면서 얘기 안 듣는 거” “뭔가 내가 섹스토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유진은 지금 생각해보니 성기를 자꾸 비비는 게 되게 불편하고 싫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경험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전과 지금 유진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개념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면 성폭력”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숙은 첫 번째 남편의 외도와 반복되는 성폭력으로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도 첫 번째 남편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 애 아빠도 만들어줄 겸 친절하고 다정해서” 결혼했지만 의처증과 폭력과 강간은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남편은 영숙의 목에 칼을 갖다 대기도 했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간을 하기도 했고,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기도 했다. 두 번의 경찰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오히려 “그러니까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뚜껑이 열렸다”. “내가 당한 게 폭력일 텐데 왜 저런 반응을 보여주지?”라고 생각했다. 영숙은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감당되지 않아서 자신이 소장을 작성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은 내가 겪은 일이 “맞다, 폭력이 맞구나, 나는 폭력 당했던 게 맞고 가스라이팅을 당한거구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고

앞으로는 강하게 나가야지” 다짐했다.

서현은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후 시간이 지나 상담 치료를 받으며 성폭력으로 규정하게 됐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서현이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가해자였던 할아버지와 관계와 연인이었던 운동부 선배와의 관계는 비슷하게 느껴졌다. 둘 다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었고, 나에게 폭력이 올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서현은 “가족들의 관계를 폭력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딱 하고 짚고 넘어갔”다.

위 인터뷰 참여자들의 사례는 비교적 명확한 위계관계이거나 강제적이거나 기습적이거나 분명한 거절 의사를 무시했거나 잠들어서 무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위의 성격은 성폭력이라는 명명으로 이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 명명하게 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추후에 지식이나 상담 등을 통해 생기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 자체를 참조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2

명명하지 않기(1)

한계에 대해 판단하기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 및 관계 재정의의 부담감, 공적 해결과정에 대한 회의감, 일상에서의 우선순위 판단, 사안 경중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지 않기도 한다.

현아는 고민으로 남은 섹스에서 어떤 섹스는 “그냥 즐기지 않았다”이지만 어떤 섹스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동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될 때 그렇다. 변호사인 현아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기도 하고, 비동의강간죄 현황이나 성폭력상담소의 적극적 합의 운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아는 자신의 경험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 성폭력이라고 할 때 그때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피해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아는 피해자 대리 및 지원을 하면서 성폭력 문제제기가 피해자에게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임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삶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보라는 원치 않았는데 강간에 가까운 성추행을 당한 것, 섹스하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 거의 강제로 한 경험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좀 빠른 얘기” “전형적인 흐름”이며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라고 이야기 한다.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지만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보라가 생각하기에 ‘성폭력’이라고 하면 “큰 상해를 당해야 할 것” 같다. “내 손가락 아픈 게 중요”하듯 나의 감정에 집중하면 성폭력이 맞는데, 검열적인 생각이 든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엄청난 일들”이고 “저 정도는 돼야지 스토킹이라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라가 선택한 전략은 마음의 안정찾기 이다. “스토킹범들은 어떠한 뭐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피해가 “네버엔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한국사회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과 관련해 “무정부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다. “해결도 해결인데 내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게 걱정”이기 때문에 신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결되고,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역량, 의미에 따라 성폭력 명명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인지적,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 명명하지 않기(2) 다른 기준 만들기

한편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문제적인 성적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소하거나 관계적으로 해결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 하고 있고 반성폭력 운동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영은 무성애자이며 전 남자친구는 무성애자가 아니었고 촘촘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팔짱끼는 것 손잡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항상 구했다. 그런데 직장의 행사 뒷풀이 자리에 초대된 애인이 지영의 허벅지를 동의 없이 쓰다듬었다. 지영은 자신이 '일반 사기업'에 다녔어도 "이딴 짓을 여기서 할까"라는 생각이 "빡이" 쳤다. 상대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영은 성폭력이 아니라 "무례하고 센스없고 동료들과 직장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성폭력으로 이야기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도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영에게 성폭력은 이해가능성과 관계성의 문제이다. 만약 동료가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맥락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식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만약 친한 친구들이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뭐냐 미쳤냐 이 또라이야"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 있다면 성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상지는 동의에 대한 질문을 여러 관계를 거쳐 해오며, 동의가 혼란스러울 때 성폭력인 것과 성폭력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겼다.

첫 번째는 만족에 대한 것이다. 성적 만족이라는 것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사람, 장소, 시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100% 강압인 것은 없었기에 성관계가 좋으면 동의 그 자체가 혼란스럽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참고한 섹스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동의가 아니었더라도 끝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하면 좋을 것을 알지만 바빠서 하기 싫은 섹스, "빨리하고 끝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루어진 섹스가 주로 상지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참고 한 섹스라고 할지라도 끝나고 불편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다. 실제로 "사실 하기 싫었다"라고 말한 뒤 갑작스러운 섹스가 많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

4

### 내가 결정했지만 남은 것

영미는 연인관계에서 해줘야할 것 같아서 입이나 손으로 대신 해주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던 섹스를 했던 경험이 있다. "추행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응했던 경험들이 "100% 내 주체적인 판단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강요된 동의"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강요, 강제 때문은 아니었고, 내 안전이 정말 위협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거절하면 골치아플 것 같고 약간의 의무감이 있었다. 이는 거절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경험으로, 자기탐색이나 자기공부가 더 필요한 경험으로 영미에게 여겨진다.

다솔은 “분명히 제가 결정한 거”이지만 고민이 남은 경험을, 좋지 않게 남아있던 경험,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질 수 있었던 전 남자친구 이야기, 주변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서 많이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인터뷰 말미에 다솔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단지 ‘섹스를 요청하는 사람’의 의미만 있었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니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영미와 다솔은 자신의 경험이 기존의 성폭력 정의에 맞지 않다고 느끼고,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섹스들의 강요, 의무감, 폭력성은 내가 결정했더라도 불편감과 고민을 남겼다.

나연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남은 “후유증”과 “우울감”을 들여다 본다. 그것은 이용당했다는 느낌, 억지로 하는 기분, 술을 잘 못하는데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 내가 스스로 술을 내 입에 넣었지만 사실 원치 않은 것과 같았다.

나연은 혼란스럽지만 동의가 고민되었던 경험과 성폭력이 “스펙트럼” 이라고 말한다. 나연이 생각하기에 성폭력과 동의가 고민되었던 경험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위협의 세기일 뿐, 거듭 부담을 주면서 강요하는 것도, 회유하고 해달라고 조르는 대화도 비슷한 양상이다. 성폭력 경험에서 “감금하고 맥주병으로 깨버리겠다 뭐 어떻게 해친다고 위협”했던 게

물리적 폭력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것 뿐이다.

나연은 “명확하게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거에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걸 부차적이라고 한 쿤에 생각을 놔둔건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연장 아닌가?” 라고 질문한다. 마지못해서 ‘그래’라고 했던 것은 동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요구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태가 또렷하고 심각한 폭력적인 언행은 없기 때문에 문제화되지 않고 부차적으로 남아있던 경험들이다. 성폭력도 아니고 내가 결정했지만 해소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고민이 남은 이 경험들은, 현재의 동의와 성폭력 담론을 살펴보게 한다.

첫 번째로는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문제적인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한 현실이 있다. 이는 여러 한계로 인해 성폭력을 명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문제이다. 극심한 폭행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있는 힘껏 저항하는 피해자라는 성폭력에 대한 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 역시 내가 겪은 이 정도의 일이 피해인가?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운동단체를 비롯한 많은 행위자들이 성폭력 문제를 설명해온 원인, 서사, 문제해결 방식, 상식 위에 자신의 경험을 위치해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력이 약했고, 주도권 없이 해야해서 했고, 남성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지만 기존의 성폭력 담론에 들어 맞지 않는 경험들은 해석할 언어가 없다.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여겨져서 부차적으로 두었지만, 그 경험에 대한 부당함 또는 괴로움, 문제점이 정리되거나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험들이 성폭력 상담 현장에 들어온다면, 권력에 의한 원치 않은 성관계였는데 왜 성폭력이 아닌가, 성폭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힌다. 법적 해결 중심의 협소한 성폭력 정의, 성폭력과 피해 바깥에 문제제기 언어가 부재한 현실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의가 단지 명시적으로 행해진 선택과 결정의 의미일 때 오히려 성적 권리와 무관해지는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실시한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이는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 주체를 전제하고 있으며, 충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 주체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박혜진 2009). 예를 들어 청소년, 장애인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의 맥락에서만 이야기 되며 인정해야 하나 마냥가 쟁점이 되곤 한다. 비장애인 성인여성의 경우 어떠할까.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 판결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무죄를 판결하며 “피해자는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성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고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위력 행사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자유의사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정한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 라고 본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여성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폄하라고 보는 관점과 같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관계나 맥락 내의 권리 보다는 주체의 피상적인 위치에 따라 소유하는 능력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느라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 담론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관계, 조건, 과정은 제대로 살피지지 않으며 ‘동의’는 자기 책임이 있는 결정이나 선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성적 경험은 해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검열의 기제와 사회적인 비난의 근거가 된다.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다가 ‘한번 해주고 말지’ 라는 생각에 한 뽀뽀(보라)는 동의한 것인가? 원해서 한 선택인가? 추후 성희롱 문제제기를 할 때 보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가가서 뽀뽀했고’ 그 순간 ‘너도 동의했잖아’로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의 맥락을 ‘선택’이 무화시킨다. 데이팅 어플이나 클럽에서 만나 내 발로 모텔에 갔다면, 당연한 것처럼 섹스해야한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나연)은 아무 문제 없는가? 더 큰(크다고 여겨지는) 폭력의 두려움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했던 섹스(서현),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담을 수 없는 시나리오를 수행해야할 때의 곤혹스러움(유진)은 여성들이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침묵해야하는 문제일까? 의문이 제기 된다.

여성들이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발휘하는 자율성과 이들이 움직이는 세계 및 만나는 대상의 폭력성이 모순될 때의 문제를 ‘명시적 선택’으로서의 동의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한다. ‘동의’가 유의미한 질문이 되려면 불평등한 세계와 각본과 행위자들이 놓여있는 조건 자체에 대해서 대해서도 질문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 6) 위험 너머 나아가기

### 1 매번 성폭력만 있겠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남성과 스킨십을 하고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저항감을 갖게 되게 하기도 하고, 피해가 있으면서도 계속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피해자다움이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참여자들은 피해 이후의 몸으로 관계 맺고 욕망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 과정을 회복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나연은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반복되었지만, 외로움이 느껴지면 채팅을 했다. 스스로 “내가 왜 계속 채팅 어플을 할까” 생각을 한적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약간 오기도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왜 못해야 되지 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렇게 만나서 성폭력이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성폭력이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오기있게 이어간 성적 실천들은 결국 존중받는, 좋았던 성적 경험으로도 이어졌다.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나연은 이것을 치유의 경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영숙은 두 번의 결혼 모두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을 만난 이후에 딸들에게 남자를 많이 만나보고 겪어보라고 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도 돈을 벌어서 애 넷을 키워야했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정작 “나는 왜 이려고 있지”이런 생각이 들었다. “시도를 해봐야 사람같은 사람을 만나겠구나” 싶어서 어플을 시작했다. \*\*어플은 나이제한이 없었다.

영미는 피해의 영향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을 실험하고 알아가 보기도 한다. 영미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이다. 피해 당시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신체 반응으로 피해가 남아있어서 무언가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영미는 몇 번의 연애나 성적 조우를 통해 자신이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 알게 되고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 피해 경험으로부터 그 영향으로부터 그 영향을 걷어낸 나는 뭘 느끼고 뭘 좋아하고 뭘 감각할까,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대들을 만났을 때 좀 심사숙고해서 안전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걸 실험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기도 해요. 나를....나 스킨십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성적으로 내가 뭔가 건강하지 않거나 이렇지 않구나. 나도 그냥 건강하게 욕구가 있고 성욕이 분명하게 잘 있는데, 억압을 당했었구나. 그런 거 그리고 그냥 내가 건강하구나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 2 안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위험을 탐지하기

성인이 된 이후로 연애, 캐주얼 섹스, 데이트 등의 성적 관계를 활발하게 맺어온 보라는 “중간중간 폭력적인 일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런 상처 있었다고 평생 안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의외로 없어요. 오히려 저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아무리 소위 말하는 보장된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 페미니스트 뭘 상관이야. 섹스하는 건데, 아니면 아닌 건데. 저도 그걸 알고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안전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안전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다 안전했으면 그런 상처받은 일도 없었겠죠. 있었다는 거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고.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영숙도 상대방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지는 실제 섹스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실제로 섹스를 시작했는데 상대 남성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거부하고 나오기가 힘들다.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누르면 끝”이고 “맞아서 기절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반항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성적 실천을 마다하지도, 안전하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다. 특히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은 대면의 위험을 줄인 채 상대방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영숙은 어플에서 일단은 대화에서 사람을 거른다. 영숙은 “자신은 원나잇이 안되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섹스가 가능한데 너는 어때냐” 라고 물어본다. 상대방이 “남자는 원래 본능이 어찌고 그러면” “그 순간 아웃”이다. “여자가 강하면 싫어요 말이 씨다”이런식의 발언을 하면 “대화를 더 할 필요가 없”다. 앞머리는 왜 내렸는지 염색은 왜 했는지 물어보며 “외모 후려치기”를 빙자한 칭찬을 하면 “속으로는 아웃”이다. 첫 대화부터 섹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 하라는 소리도 안하고

신고”다. 대신 “요즘 날씨가 이래서 괜찮으세요? 내가 일하는 중인데 언제쯤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오케이를 한다. 어플에서는 “대화를 열었다가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드는 이야기 하면 달아버림” 되기 때문에 거를 수 있다.

서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계를 맺고 넓힌다.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피드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다. “인스타는 사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건지는 성격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1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해보고 성격을 조금 판단해본다. “괜찮은데” 가 되면 전화를 해본다. 예의가 없거나 말투가 “성깔있어보인다”하면 거기서 끝난다. 서윤은 “보통은 전화로 되게 많이 갈리”게 된다고 말한다. 전화를 했는데도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만나본다. 만나고 나서도 “말투가 바뀌지 않거나 괜찮으면”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지속한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지영 역시 틴더에서 알게 된 사람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쭉 내려서 구경하다가, N번방 사건 관련한 포스팅, 퀴어퍼레이드 참여와 관련된 게시물을 보면서 “인권엔 관심있는 사람인가보다” 생각했고 인권 감수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3 ————— 폭력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즐거움의 발견으로부터

“늦게나마 두 번의 안전한 성관계를 경험해보니까 이게 굉장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신세계구나 하면서 이제는 좋은걸 경험해 봤으니까 과거의 해로운 관계 이런거는 다시는 맺고싶지 않다.”

나연은 외국인이었던 전 파트너와 지금의 애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내가 존중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처음 느끼고 “굉장한 치유”의 경험이 되면서 ‘좋은 관계’와 ‘해로운 관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 했어도 흘려버리거나 이번에는 제대로 중간에 멈추는 거 없이 자기 사정할 때까지 해야한다며 성폭력 트라우마를 약점으로 여기고 부담을 주었는데, 그에 반해 두 사람은 나연의 피해를 위로해주고 이해 해주었다. 그리고 콘돔을 미리 준비하고 애무를 할 때에도 “여기 애무 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았다. 모텔에 가더라도 꼭 섹스 하지 않아도 되었고 쉬다가만 나와도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들은 “특이한 경험”처럼 느껴졌다. 나연은 “내가 모텔 가는 거, 성관계를 싫어하는 거라기 보다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였구나. 성적 관계가 만족이 되니까 (모텔을) 가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적극적 합의로 섹스 구조화하기’ 파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유진 역시 성적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 성적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존의 불안한 섹스 경험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삽입중심의 섹스가 아니라 충분한 전희가 즐거움을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즐거웠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은 그 이후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장소, 무드, 방식 등을 합의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려면, 폭력의 반대인 즐거움이나 안전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고 무엇에 쾌락을 느끼는지 알아야 그게 존중되지 않는 상황도 알 수 있다.<sup>6</sup> 위 사례들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전 관계를 질문하고, 폭력에 대해 인식하게 된 계기는 좋은 관계, 즐거운 성적 실천의 경험에서 발생했다. 즐거움을 발견하고,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던 관계는

⑥

별록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 2부 주체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누가 정했을까?” 에서 인용

우연적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 경험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실천에 있어 중요한 질문으로 삼은 참여자들에 의해 의미화될 수 있었다. 이전에 폭력적인 관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고, 나의 관계 맺기 방식을 성찰하며 상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해 나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배움을 이후 다른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험하면서 위험의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에 압도되지 않는 역량을 쌓아나갔다.

#### 4 ————— 권력을 갖는 섹스

어떤 섹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었던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힘은 기존에 했던 이성애 섹스에서와 다른 구도, 위치, 역할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취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몸을 인정하는

내가 쓰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SM을 해야 하느냐 혹은 하면 안 되느냐 같은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내 경험을 선택하고 처리해 나가느냐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에서 놀랍고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고 싶다면, 힘을 가진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말로 내게 좋은 경험을 갖게 해주려고 하고 내게 신경과 관심을 쓰고 나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파트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도 힘을 가진 위치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도 힘을 가진 위치이다. (...) 육체적인 면에서 나는 내 몸 상태가 좋을 때, SM하기를 좋아한다. 잘 쉬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말이다. 그것도 힘을 가진 위치이다

클라리스 쏘(2020), 『S&M 페미니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집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 3부 응용편> 회정 “이상성욕자? 선택한 변태들의 목소리” 발표문에서 재인용

대화에서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 그 자신이 삶에서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이성애 연애와 섹스에 있어서 권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애 연애 각본은 남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세운 판’(지영)이다. 여성들은 그 기획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위치에 있다. 때로 여성들은 그 정성껏 준비된 기획에 초대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강제되기도 하다.

BDSM 섹스와 바닐라 섹스 둘 다 실천하는 서현도 두 실천을 오가며 일반적인 섹스에서 여성에게 주도권이 없음을 발견한다. 바닐라 섹스의 룰은 “남자들이 리드를 하는” 섹스, 남자들이 물어보고 여자들이 수락하고 남자들이 알아서 콘돔을 잘 끼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알아서 강압적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다. 섹스 말고도 바닐라 연애들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발생한다. 서현은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바닐라 섹스와 연애에서 주도권을 갖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성향자의 섹스에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합의하고 어떤 섹스를 할 것인지 세세하게,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 것인지 까지도 미리 계획한다.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은 “우위에 있다는 느낌” “권력을 가졌을 때”의 즐거움을 말한다(나연, 유진). 이것은 통제감을 의미한다.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안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감’ ‘상대가 나를 제압하지 않을 거라는 안전하다는 생각’ 등이다. 어떤 도구로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부터 사후 돌봄까지 “디테일하게” “대화과 소통을 많이한 사람일수록 더 안전”했다. 이것은 비단 BDSM 실천에서만 경험은 아니다.

통제할 수 있는 섹스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면 즐거움으로 연결되었다. 서현은 성적 시나리오에서 간과되곤 하는 주도권의 의미를 덧붙인다. 서현은 주도권을 “책임 지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 책임이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부상까지도 책임지는 것이다. 섹스하는 몸과 감정, 상처와 즐거움을 같이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BDSM 실천만이 기존 섹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파트너들은 ‘좋은 섹스’를 같이 만들어 가는 계기이자 조건이 된다.

이성애 섹스 시나리오의 신체적 강인함, 자신감,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고 리드하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전제 한다. 그런데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 어떤 남성들은 이러한 남성성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유진은 지금의 파트너가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살필 수 있는 순간이 열린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좀 뭔가 오늘은 불안해서 아니면 뭔가 좀 배가 아픈 것 같고 막 이래서 발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여자들처럼 비슷한 그런 거 있구나를 처음 깨달아가고 뒤로부터 이제 말로 언어적으로 밖으로 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하고 싶다 아니면 어디까지만 하고 싶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질액이 만나와도 흥분한 척하고 삽입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질액이 만나오면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삽입을 안해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좀 허리가 아파서 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살피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보라의 현재 남성 파트너는 섹스를 별로 안 해봐서 자신이 없었다. 보라는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지만 이 사람은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세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부터 밖에서 손 잡는 것, 어떤 섹스 토이를 사고 어떤 콘돔 제품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익숙하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보다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대화한다. 이는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평등하다는 느낌”도 든다. 그 전에는 대화를 하더라도 섹스 하기 전후에만

“좋았냐, 어땠냐 감정적인 피드백, 아팠냐는 피드백”을 하는 대화  
위주였지만 지금은 우리 관계 전반에 걸쳐서 섹스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실천을 하는 여성 그 자신이 힘이 있는 상태였는가 역시 중요하다.

혜진은 첫 번째 성적 경험이 성폭력이었다. 성폭력 피해 이후를  
“힘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피해로 인해 몸도 안좋아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집도 옮기고 간신히 학교를 다녔다. 힘이 없는 상태,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력해주었던 선배와 연애를  
했다. 의대생이었던 첫 번째 남자친구의 바쁜 일정에 맞추는 방식의  
연애였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너 나랑 잤으니까 결혼해줘”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은 혜진과 결혼을 하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기울였다. 첫 번째 남자친구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잠시 미국에 간 사이 만났던 다른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혜진은, 모든 것이 자신이 원치 않은 관계라고 느껴져 결혼 일주일 전에 상  
대방과 가족들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혼자 여행을 간다. “그리고 나서  
조금 단단해” 저서 돌아온 뒤에 첫 번째 남자친구와도 완전하게 헤어질 수  
있었다.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에서 저의 주도권을 가져왔던(것 같아요).  
제 힘을 회복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 일주일 전에도 하기 싫어서  
헤어졌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경험이 확실히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자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 한다. 우선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동아리 소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 그런 책들”, “민주주의, 시민운동 운동사”  
등을 공부하고 이야기 했다. 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당시에 혜진이 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힘을 가진 채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의 이야기는 원하는 친밀한 관계와 성적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삶 자체에 대한 주도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힘을 찾기  
위해 삶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하게 된다.

#### 4. 결론 : 위험을 돌파하려면



지금까지 15명 여성들의 ‘동의를 고민된 성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존중, 만족, 즐거움, 사랑, 안전 등을 보장해주지 않았던 성적 경험 이야기들은, 동의를 ‘제안된 성행위를 하기를 결정한다는 것’의 의미 그 이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내가 동의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 때의 관계, 맥락, 상대, 남은 감정 등을 꺼내보며 “동위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sup>7</sup>는 시도이다. 그 결과 드러나는 것은 성적 실천에 작동하는 성별을 비롯한 권력의 작용들이며,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친밀한 관계 형성의 장에 들어서지만 그 장의 기본적인 각본에 자신의 욕망과 의지가 고려된 적 없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서 자기 결정, 자기 선택이라는 행위에 대한 강조는 권리가 아니라 자기책임의 의미로만 귀결된다.

그렇다고 ‘동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동의’에 대해 끈질기게 고민한다. 동의라는 언어를 고민이 남은 섹스와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고, ‘동의’는 강력한 언어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맞지 않다고 제쳐두기도 하고, 이런 저런 실험을 해보며 기존의 ‘동의 실천’에 대한 다른 지식과 모델을 만들어간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선택은 자주 실패와 상처와 폭력으로 이어지지만, 주도권이 있었던 어떤 관계나 어떤 삶의 국면에서 ‘동의’는 힘을 발휘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동의’와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성과 친밀성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성적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다른 조건에서의 권력과 권한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라는 것을 말해준다.

⑦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항에 부쳐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63p

여성들은 성폭력을 비롯하여 성적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직면하고 위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지만 성적 행위를 해가며 자신을 알아가기, 자신이 원하는 관계와 삶을 찾아가기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혼자 책임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서로 함께할 수

있을까?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재해석과 해결을 함께 하는 정치적 운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상담소에서 자원 활동하고 행사나 교육 듣고 하는 것들이 제 개인한테는 굉장한, 내가 겪은 일들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지지도 되지만, 큰 힘도 되고, 물론 연대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런 거를 내 사건이 생겼을 때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나연)

“제 역사는 계속 가야되니까 그것(성폭력)과 분리해서, 분리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그 OOOO 활동하면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아는, 최선을 행동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엄청 큰 충만감을 줘서.”(영미)

나아가 성적 실천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 쾌락과 건강의 주체로서의 삶을 보장하기 조건들이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한다.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양질의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등이 해당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인식과 규범 만들어 가는 삶의 준거 틀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에바 일루즈(2020)  
『사랑은 왜 끝나나 - 사랑의 부재와 종말의 사회학』  
김희상 역, 돌베개

케이트만(2021)  
『남성 특권 - 여성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인혜 역, 오월의봄

이상희(2022)  
『위험을 감행하는 여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국희(2020)  
『비연애』 담론이 드러내는 여성 개인 되기의 열망과 불안 : <계간홀로>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4)

박혜진(2009)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21(3), 229-252.

한국성폭력상담소(2020)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이슈대응 집담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자료집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23)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김신현경(2023)  
『데이트 비용은? '쌈'만?... 연애 예능이 보여주지 않는 청춘들의 연대』  
한국일보 젠더살롱(2023.02.2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0050000346>

이유림(2020)  
『쾌락을 의사소통하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이슈페이퍼』 (2020.02.29)  
<https://srhr.campaignus.me/issuepapers/?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6142920&t=board>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15)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지지자가 궁금해 하는 것』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색다른 의원(2023)』  
『색다른 토크하세어 03 : 항문섹스도 인권이다!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소비자원(2020)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이 연구는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 그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적 동의’와 관련한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그 활동이란 첫째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물리적이고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 운동’이며 둘째 ‘성적 동의’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운동의 목적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어떤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에 대한 상상력을 넓힌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활동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특히 여성들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이 연구는 두 번째 활동과 관련해 중요하다.

나이도 하는 일도 다양한 15명의 여성들의 경험은 성적 동의가 동의 아니면 비동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섹슈얼리티가 복잡한 지형에서 구성되는 인식이자 경험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드러낸 여성들의 경험이 좀 더 넓은 사회적 변화와 맥락에서 보다 깊이 있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맥락은 소비문화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성애화된 서비스의 영역과 범주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성폭력으로 규정하거나 그 동의가 무엇에 대한 어떤 동의였는지를 질문하게 된 상황을 네 가지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대와 다른, 섹스만 하는 관계’와 ‘나의 욕망이 배제된 섹스 각본’의 경우 첫 번째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종류의 방들과 마사지, 도우미 등 성적 혹은 친밀성 서비스는 주로 남성들의 성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충족시켜주는 산업으로 그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대면 접촉 없이도 원할 때마다 간단히 접속하여 자기 욕구를 해결하는 성적 행태 또한 강화되고 있다. 소라넷, N번방, 벗방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어떤 여성이라도 불법적으로 촬영되어 성착취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틸더와 같은 데이트 앱은 남녀 모두 소비자로서 참여하지만 남근 중심적 쾌락의 원리에 따라 ‘차가운 친밀성’이 번성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쾌감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매우 익숙하다. 포르노적이며 성폭력적인 섹스 각본을 정상적 섹스 각본으로 여길 가능성도 높다. 여성들에게 강요된 근대의 성-사랑-결혼의 연결 각본은 해체되었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원하는 섹스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하고 드러내는 것에 개방적이고 관대한 사회는 아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와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스로 시간을 들여 탐색할 기회는 별로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남성이 주도하는 관계에서 그가 원하는 방식의 섹스를 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의를 포함해 여러 복잡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맥락은 일터에서의 친밀성 노동이 여전히 젠더화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증가해 왔지만 일터 내 여성들의 지위는 여전히 혹은 새롭게 형편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난히 큰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말해 주는 것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저평가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터 내 지위가 높고 자원이 있는 남성들의 경우 직장 내

저평가된 노동을 하는 여성들로부터 돌봄과 위로를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 바깥에서도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감정은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미투운동을 이해하지 못 한다. 웃으며 받아주고 나서서 분위기 좋게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투운동이 그토록 강력한 백래쉬를 불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상력을 빼앗긴 섹스’와 ‘연애/결혼 관계에서의 해야 하는 섹스’로 범주화한 경험이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관계를 혼인, 연애, 데이트, 씬, 캐주얼섹스로 분류해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면 한다. 현재 연구에서의 해석은 이런 분류가 실제 경험 특히 동의에 대한 고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씬’은 한국 사회에서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새롭게 언어를 얻은, 대단히 한국적인 친밀 관계이다. 남녀관계를 서로 소유하는 관계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씬은 그 소유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소유관계를 가정하는 회색 지대다. 그 와중에 벌어지는 성적 관계와 상황은 여러 욕망, 경험, 해석을 낳는다. 이를 감안해 각각의 친밀관계에서 성적 관계, 욕망, 동의에 대한 고민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지점들이 바로 성적 동의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담론을 새롭게 펼쳐야 하는 지점들이기에 그렇다.

장애 여성, ‘위험’한 몸으로  
욕구를 드러내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1. 장애여성의 동의를 묻지 않는 사회

본 토론문은 발제문과 연결하여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의 고민과 성폭력/인권침해/탈시설 지원현장에서 만난 발달장애여성(이하 장애여성)의 말하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발제문에서도 동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정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맥락과 서사를 밝힌 것처럼 토론문에

인용된 내용 역시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드러낼 수 없었던 장애여성과의 현장의 이야기이며 각색하여 정리하였다. 토론문 작성하면서 장애여성공감에서 향후 과제로 장애여성의 다양한 맥락의 성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첨예하게 사회적으로 알려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발달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은 사건이자 다양한 폭력의 연장이며 일상<sup>8</sup>이다. 장애여성의 폭력 및 차별 경험은 단일한 상황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 기관/시설, 노동현장, 학교, 지역사회(동네) 등 일상에서 경제적 착취(핸드폰 명의도용, 아파트 분양사기, 대출사기 등), 가정폭력, 학대, 차별, 주거 불안정 등의 복합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삶의 ‘주도권’이 박탈되는 것은 장애여성에게는 전생애 걸쳐 일상적이다.

사례 1) (보호자)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를 꼭 데려가야 하나요?”  
“(장애여성) \*\*한테 물어보세요”

사례 2)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촛촛합니다. (중략)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죠. 아동이라든가 장애라든가 특별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 3) “고소장 이렇게 쓰라고 누가 불러줘서 쓴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서 쓴 거예요? (대답) “생각해서 쓴 거예요”

사례 4) “원장님 이사장님 저 찾지 마세요. 의무실 선생님 약 챙겨오지 마세요. 통장, 도장, 내꺼 전화 주세요. 생재과(생활재활과) 찾지 마세요. 지금 잘 살아요”

첫번째 사례는 사건 지원 과정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공통된 상황이다. 상담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 우선 면담이다. 듣는 이들은 당연한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후술하겠지만 장애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원칙은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한다. 첫 면담 날짜를 잡을 때 주로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반성폭력운동의 시작이다. 지원 시작부터 장애여성의 존재는 지워지고, 당사자의 생각과 감정은 보호자에 의해 대리되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상정된다. 장애여성 당사자 역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의사를 대리해왔던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

두번째 사례는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의 강간죄 개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다. 동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동·장애인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많다고 말한다. 이어 비동의 간음죄는 수많은 특별법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하며 강간죄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촘촘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는 의미인가? 문제제기할 포인트가 많지만 본 토론과 연결하여 해당 주장은 장애여성의 ‘동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세번째 사례는 피해자 증인출석을 한 장애여성 누구나 반드시 받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가능한 것은 장애여성을 판단/선택/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장애여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를 인지하고 청취한 다양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다. 장애여성의 ‘주체성’과 ‘의사’의 입증은 “생각해서 쓴 거예요”라는 장애여성 당사자인 ‘나’의 발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변 정황 및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입증되는 ‘난관’을 거쳐야 장애여성의 ‘진정한’ 의사는 인정받을 수 있다.

네번째는 2021년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발달장애남성의 이야기이다.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통해 몇 년 간 탈시설을 지지했던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 사무실로 찾아와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탈시설은 ‘단순 가출’로 문제화되며 지적 능력을 이유로 탈시설 의사의 진정성은 의심받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탈시설을 지지하고 조력하는 단체에게 “당사자의 삶을 ‘책임’ 질 수 있냐?”며 자신들은 가족의 위치에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또 “탈시설 의사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당사자의 선택을 의심하며 조력 단체의 목적을 질문하며 의사가 부족한 사람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sup>9</sup>

9

진은선. 탈시설  
정책은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2023

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판단과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제도 및 사회인식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삶 전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그로 인해 장애여성운동에서 당사자의 ‘주체성’,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투쟁이다. 본인 삶에서 자기 주도권, 권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을 빵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어떤 속옷을 착용할 건지 등 주체성을 상실하는 경험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분투하지만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어쩌면 실패는 일상이고 부딪혔을 때 함께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적관계에서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상호적이고 평등한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몸과 성적행위 등을 포함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 인권의 주체<sup>10</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삶의 관계와 조건들로 인해 ‘동의’와 ‘자기결정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10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20주년 논평. 2021

해당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게 되어도 그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며 사는 삶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가 장애여성의 동의와 결정을 이야기할 때는 당사자가 무엇을 동의하고 결정하려 하는지 궁금해 하기보다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의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여성의 동의는 어떻게 이야기 되어져야 할까? 이 질문을 동의를 성애적 실천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필요한 언어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보라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하여 던져본다.

## 2. 성폭력 vs 성적과잉행동, 이분법적 구도에 갇힌 장애여성의 서사

“남자=연애=사랑=섹스=친구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를 분리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법이 있을까요?”

“장애여성들은 위협의 리스크가 크잖아요, 불안하죠”

“자꾸 핸드폰으로 남자랑 연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스킨십은 바람직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애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못 만나러 가주게 해주세요”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중요한데 보호를 위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하는지”

장애여성을 만나고 있는 가족, 시설, 복지관, 학교 등 다양한 지원현장에서 꾸준히 듣는 이야기들이다. 남자와 만나는 것은(모든 연애 관계는 이성애를 전제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위험하고 불안한 일, 연애/사랑은 폭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의 항목이 된다. 주변인들은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인정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이나 책임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주변인들이 장애여성이 맺는 관계, 특히 성적관계에 대해 위험과 불안을 앞세워 통제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는 장애여성이 맺는 관계가 위험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이야기하며 불안해 한다. 사회는 불안과 보호를 내세우며 장애여성이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지, 직접 만나 확인하고, 만남의 대상을 허락받으라 한다. 밤늦게 외출할 수 없고, 연애 대상은 혼자 만나선 안되니 친구와 같이 만나야 하고, 핸드폰을 뺏기거나 통화와 문자 등을 수시로 체크한다. 불안과 통제 속에 장애여성의 욕구, 선택과 행위의 맥락은 누락되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에 성적 권리를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성적이거나 무분별한 존재’로 정형화된다.<sup>11</sup> 앞선 불안을 앞세운 통제에도 양 극단의 프레임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수사법적 과정에서도 무성적인 여성으로 보이는데 성공할수록, 장애정도가 심해서 저항히 현저히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야 피해를 인정받기 수월해진다. 그러나 일상 생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채팅 등을 통해 소위 적극적으로 남성을 만났고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보여지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 가능하고 성적관계에 ‘합의’, ‘동의’한 사람이 된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장애여성의 욕구와 욕망은 성적인 목적으로만 치환되고, 성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정리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로의 욕망이 곧 폭력에 대한 동의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순응하는 장애여성 되기라는 사회의 요구는 당사자에게 보호와 통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며, 삶의 주도권과 능동성을 상실시키는 과정이다.<sup>12</sup> 장애여성에게 욕망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위험한 조건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성적 즐거움을 탐색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sup>13</sup> 발제문에 성폭력 명명, 한계에 대해 판단하기 또는 다른 기준으로 명명하기 않기 등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한 언어들에 매우 풍부하게 담겨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언어로 더욱 드러나야 함을

11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2015.8

12 장은희, 2019년 장애여성 인권상담 토론회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2019.

13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여성들의 성적경험은 혼란스럽거나 고민할 시간 없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피해’로만 규정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성적욕망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금기의 것이 된다. 본인의 성적경험에 대해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기회와 언어가 부재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서 장애여성의 무능력하고 취약한 위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상황에서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성적 자율성을 부정당하게 되고, 성적 자율성을 인정받으려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무능력한 장애인을 선별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법의 태도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장애여성의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 증대는 동시에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4</sup> 즉, 극단의 이분법적인 구도는 장애여성의 권리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몸에 대한 통제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일상의 경험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나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스킨십,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적침해의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동의/부동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말로 사랑과 폭력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지(지원 경험을 토대로 보면 장애여성들이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말할 수 없거나 말해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스킨십과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해 토론하고, 위험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야 할 사람은 외부의 성전문가가 아닌 관계맺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의 장애여성이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가 아닌, 왜 당사자에게만 위험하다고 하는지 사회에 질문하는 동료/가족이 아닐까?<sup>15</sup>

14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권을 중심으로. 2015

15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사랑해줘야 하나,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누워서 어깨동무)랑 다르지?”  
 “좋지는 않았는데 연애하면서 이렇게라는 생각. 새로운 느낌”  
 “성관계하는 것 자체는 싫은데 그 아이는 좋은 것”  
 “보통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반지, 밥 먹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들이 있는 거 자체로 좋았어요. 그 과정(서로의 몸을 만지는)이 좋았어요”

“의지되는 존재. 반응해줄 때가 반갑기도 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 옆에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은 진짜 만약에 결혼하면 잘 해주겠다. 가족과 다른 거죠”

“샘한테 들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하면 혼날까봐. 부모님 반대. 허락없이 만났는데”

“지 필요할 때만. 자기 생각밖에 안하는”  
 “제가 하지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거주시설, 쉼터, 고시원의 공간을 오가며 살아왔던 장애여성의 삶에 다가가 보자. 정주하지 않았던/ 못했던 삶 속에서 성매매-연애-폭력 등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지만 지지적인 사회관계망이 부재한 장애여성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유효한 이성과의 연인관계가 선택되기 쉽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은 주거, 일상의 고립, 불안을 해소한다.<sup>16</sup> 이러한 장애여성의 삶에 대해 사회가 그것은 연애/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반문을 하게 된다. 사랑과 폭력은 분명 관계의 연속 선상에 있고 그 안에는 성적 욕구와 호감, 친밀함, 불편함, 연애에 대한 기대, 의지의 마음, 피/가해 등 여러 복잡한 층위의 서사들이 모호하게 뒤섞여 공존한다. 사랑만 있거나 폭력만 있는 그런 관계는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

장애여성은 동등하게 나와 대화하고 관계맺지 않는 무시와 차별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관계의 확장을 시도한다. 선택받았던 경험이 희박했던 삶에서 장애여성은 상호존중의 관계/동등한 관계 맺기를 막연하게 상상할 뿐이다. 이러한 상상/경험의 부재는 자신을 원하는 상대를 만날 때 위험과 불편은 감수할 만한 것으로 상정된다.

이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 성폭력 사건으로 구성되거나 관계의 단절을 강요받는다. 장애여성의 연애/섹스는 언제까지나 유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관계가 왜 필요한지 질문하지 않는다.<sup>17</sup>

16

유진아. 시설밖의 삶, 상호 돌봄과 함께 살기를 고민하며. 2023.

사회는 장애여성이 장애로 인해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 한다. 과연 장애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한 것일까? 위의 인용문에 담긴 내용은 전술한 극단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장애여성의 이야기들 중 일부이다. 장애여성들은 그동안 맺어온 수많은 관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을까? 시시각각 변화하며 협상의 과정에 있었을 감정과 이야기들, 사회가 위험하다고 규정한 선택과 시도만이 가능했던 이유들. 친밀하고자 했던 욕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장애여성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 이는 내가 경험한 성적 경험에 대해 정리하고 해석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연인과의 관계 외 다른 관계를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이다. 친밀성의 기대에서 이야기한 참여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지적 자원없음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장애'만이 부각될 뿐이다.

고립되고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놓인 장애여성의 다양한 맥락과 서사는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기 어렵고, 궁금하지 않은 그 무엇이다. 장애여성이 온전한 '피해자'의 위치로 본인을 발화할 때만 사회는 들을 준비를 한다. 장애 여성이 본인을 피해자의 위치로 내세우지 않으면 그 결정의 책임은 온전히 장애여성 개인이 감당해야할 몫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한다. 장애여성은 다른 대안적 관계를 꿈꾸지만 낡은 규범과 가부장남성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에 의해 번번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밖에 없다.<sup>18</sup> 이러한 구조적 현실에서 장애여성은 무엇을 결정, 선택, 동의 하였을까? 장애여성의 '결정'이 그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의 결정이 책임/선택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자신의 언어와 의지로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구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sup>19</sup>

18

이진희.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토론회. 한국여성의 전화. 2020

19

유진아. 2019년 장애여성 인권상담 토론회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2019

### 3. 성적 즐거움과 욕망을 탐색하기

- 성폭행이 걱정됨. 무서운 감정. 데이트 폭력
- 연애는 자발적.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 걱정되는 건 스토킹.
- 성폭력이 걱정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고민됨
- 연애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2023년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연애공작소] 참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연애를 이야기하는데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장애여성에게 성적 권리에 대해 폭력예방, 금기 중심의 성교육을 진행해온 결과의 반영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삶에서 연애, 섹스, 자위 등 섹슈얼리티의 실현은 일상에서 '허락'될 수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폭력 경험이 있다면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적욕망과 실천을 자유롭게 행하는데 장벽처럼 작용된다. 성적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장애여성에게 성적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성적 지식을 알게되면 본능적인 성적 관심이 과도하게 발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sup>20</sup> 이는 2021년 공감이가 발표한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 자료를 보고 자위를 표현하지 말아달라거나, 자위 얘기는 장애여성을 자극하고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최근에도 교육 갔을 때 받는 현실을 통해 증명이 된다.

20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권을 중심으로. 2015

장애여성운동에서 몸과 섹슈얼리티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장애여성의 몸의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상성, 가부장, 이성애, 남성 중심 사회에 균열을 내고 도전이자 저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장애여성공감은 피해자의 위치를 거부하며 장애여성의 몸의 경험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집요하게 집중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한 역사에 발맞춰 장애여성공감

상담소는 국가가 강요하는 피해자로서의 위치, ‘치료회복’의 대상이 아닌 ‘자기옹호활동’으로서 [공작소]를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섹슈얼리티, 독립을 주제로 긴 호흡으로 2030 발달장애여성들을 만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작소 활동을 기본 2-3년 긴 과정으로 함께 하였다.

[밤하늘의 별]

공연, 인스타 라방 재밌었다.  
우리 연애할 수있다. 파이팅!!  
밤하늘을 함께하며 다정다감한 친구  
내가 리드하고  
뜨거운 불꽃같은 연애  
밤하늘을 함께하며  
다정다감한 친구  
내가 리드하고  
뜨거운 불꽃같은 연애  
뜨거운 불꽃같은 연애

“나는 혼나고 싶지 않다. 이것만큼은 허락받지 않고 하고 싶다. 가족들이 원하는 질문만 한다”라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의식, “왜 엄마는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하죠?”라며 끊임없이 강요된 피해자의 위치에 도전하며 던지는 질문의 힘, ‘부끄러움, 야함, 민망, 창피, 이상한, 쑥스러움, 멍’ 등 강요받아온 통념일지라도 쏟아내고 표현해 보는 시간,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강요된 수치심이나 폭력이 아닌 ‘내가 리드하는 사랑,’ ‘뜨거운 불꽃같은 연애, ‘성폭력은 내가 선택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섹스도 하고 싶다’고 욕망한다. “가족들이 알까봐 불안한데, 여기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며 나의 생각, 의견, 감정을 표현하는데 안전함을 느끼며, 평등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화, 존중, 믿을 만한 사람, 친구”라고 말한다.

이렇게 장애여성들은 동료들과 함께 내가 진정 원하는 연애/성적 경험의 모습과 내가 맺어온 관계와 잘 연결되는지 다시 해석해보고 정리하며 질문도 던져본다. 사생활, 자기결정권 등 내가 가진 권리는 무엇인지 이해한다.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는 어떠한지,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합의, 동의, 거절 등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간다. 성적 욕망을 긍정하고, 이분법적 구도를 깨부수며 새로운 서사를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

도전하며 성을 즐길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 [연애공작소]는 그러한 실천을 위해 연애 체크리스트 만들어보기, 스킨쉽 그래프 그려보기, 적극적 합의 도와줘 카드게임, 자위, 사생활, 내가 원하는 섹스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섹스토이샵, 색다른 의원 등 섹슈얼리티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집중하여 이야기 나누며 활동하였다.

장애여성들은 이미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해나가고 있다. 장애여성들이 일상에서 쌓고 있는 관계들, 욕망에 대해 말할 때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실천들이 가능해져야 한다.

발제문에서 자신의 원하는 실천과 관계를 찾아가며, 이전과는 다른 성적 실천을 상상하고 찾아간다고 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욕망과 실천을 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와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서로의 몸에 익숙해지고, 뒤섞이고, 오염되어야 한다.<sup>21</sup> 이러한 과정의 경험은 욕구와 욕망을 표현하는 경험을 넘어 다른 이에 의해 대리되었던 내 삶의 성적 주체성과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쾌락의 주어에 ‘남’이 아닌 ‘나’를 기입하는 일, 즐거움이 동의를, 동의는 즐거움을 들여다보게 하는 렌즈라는 발제문의 이야기가 장애여성의 도전, 실천과 잘 이어지고 있다.

**4. 위험과 불안을 함께 겪어내며 동의의 ‘주체’ 되기**

내가 원하는 섹슈얼리티의 실천과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는 능력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적용범위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 때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원칙을 토론하고 모색해야 한다.

동의를 반드시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자발적이라 함은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무엇에 동의한 것인지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명시하며 동의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sup>22</sup>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무력화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니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sup>23</sup>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동의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참여하다.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명시적 동의 구하기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동의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동의’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은 전술하였듯이 장애여성에게는 평등하지 않다.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할 능력이 되면 자립하고, 아니면 거주시설에 가야죠”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을 앞두고 있는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완벽한 지원은 아무 문제 없이, 물 흐르듯 매끈하게 진행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장애여성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완벽한 지원이나 물리적 접근성만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갈등이 담긴 흔들리는 관계를 상상해보자. 이때의 흔들림은 권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일방적 긴장이 아니라 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청과 공명의 감각이다.<sup>24</sup>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궁금함, 질문, 갈등, 흔들림, 경청, 공명이 들어갈 틈이 없다. 훈련의

21 진은선. 성적권리를 지지하는 돌봄 관계는 가능한가. 2022.

22 『섹슈얼리티를 의제로: 장애 성인 지원 업무 가이드북』, 앞의 글

23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에브리바디 플래저북, 2022

24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대상이며, 자립할 능력과 내가 살 곳에 대한 나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장애여성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취약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사회의 메시지 덕분에 지원자-피해자 위계적 관계는 장애여성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동, 이 과정에 장애여성이 본인의 삶을 결정하고 자립하며 살아갈 때 중요한 위험, 실패, 불안울 겪을 기회와 권리는 등장조차 하지 못한다.

피해자 지원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 피해자의 장애, 정신적·심리적 고통 등 취약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하기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신은 사회변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 나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은 취약한 몸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취약한 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몸의 경험을 이야기한다.<sup>25</sup> 이것은 장애여성공감이 지향하는 ‘공동-연대의 말하기’이다. 취약한 몸의 경험이 싸울 수 있는 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부단히 상호의존적 관계를 실험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 가능해진다.<sup>26</sup>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동의’는 몸으로 체화하고 본인 스스로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지지적 커뮤니티 안에서 생겨나는 관계적 역량<sup>27</sup>, 결정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조직하는 것<sup>28</sup>을 통해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전술하였지만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을 둘러싼 가족, 지원체계, 수사기관 등 사회 전반의 보호프레임과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변인들

25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26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27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28 진은선,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2019

역시 '공동의 관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다. 장애여성은 이전과 다른 지지적 관계망의 힘을 통해 자신을 배제했던 사회와 다시 관계 맺는 과정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은 협상하고 선택하며 때론 실패하고 성공하며 동료들과 엄청난 갈등에 부딪히기도 한다. 공감은 위협의 존엄성과 실패할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상호적으로 함께 노력한다.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선택을 통제하는 방식보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고민을 나눌 커뮤니티가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중요한 이념인 '실패할 권리', '위험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동료들과의 실패는 다음을 이을 자원이 된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한 현재의 상황을 같이 겪을 동료들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sup>29</sup> 보호주의가 아닌 대안적 활동과 관계가 일상과 사회에서 연결되고 켜켜히 쌓이는 경험을 장애여성이 한다면, 그 과정이 비록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장애여성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에 맞서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공동의 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가 유의미한 질문이 되려면 불평등한 세계와 각본의 조건 자체에 대해 따져 묻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된다. 취약성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장애인이 가진 힘을 빼앗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sup>30</sup> 폭력이란 이름으로 지워진 장애여성의 삶의 서사, 욕망과 성적 즐거움을 시도한 실패의 서사, 몸에 남아있는 즐거운 기억들,

때론 위협에 처하게 된 서사들이  
함께 사회에 등장해야 한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삶'<sup>31</sup>의 이야기들이  
더 알려져야 한다.<sup>32</sup>

29 이진희.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 장애여성공감. 2023.

30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31 유진아. 장애여성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불편한 옆자리, 2018

32 이진희.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모색. 2022.

● ————— 본 연구는 성적 자기 결정의 과정과 맥락, 상황, 조건에 주목하면서 성적 동의가 자기 결정을 넘어 어떤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지 질문하고 찾아가는 시도이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권리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이상의 것, 즉 무엇인가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못하게 제약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친밀성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여성들의 성적 실천을 제약하는 사회적 관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맥락적이고 관계적 이해를 중요하게 짚고 있다. 성적 동의가 “나만의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서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이해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보면 여성들이 어떤 상황과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성적 동의를 발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여성들의 이전 경험이 페미니즘 인식론을 만나서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적 동의 가능성 여부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번 상황과 관계성이 달라서 새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에서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 —————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 자료를 정리할 때 주장을 잘 담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의 맥락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는 고민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가 15명이고 얘기가 짧지 않다. 친밀성의 관계에서 성적 실천의 서사는 개인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복잡하게 연결된 내용이다. 어떻게 자료를 정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을 살리면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떤 키워드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연애와 섹스에 대한 장소, 규범, 욕망’ 파트는 소제목으로 분류되어 개인 서사가 나뉘어져 있다. 서사의 맥락을 잘 파악하려다 보니 이 파트를 읽을 때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된다. 개인의 삶의 맥락이 잘 보이게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개인의 친밀성에 대한 욕망과 기대는 삶의 맥락과 성규범과 성의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연결된 서사를 볼 때 이해가 높아지고 행위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지의 경우 소제목으로는 나뉘진 얘기지만 쪼개진 얘기를 모아서 연결해서 볼 때 이 사람의 행위가 더 잘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 ————— 적극적 합의 원칙은 맞는 얘기지만 원칙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현실의 경험은 더 복잡해서 경험 세계에서는 이 원칙이 뭔가 부족하거나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본 연구는 동의 과정의 구체적인 맥락과 복잡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지의 이야기는 관계 맺기 방식이 달라지면(반동거에서 동거로) 동의의 내용과 실천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극적 합의의 원칙 중 “모든 과정에서 항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로 느껴진다. 상지의 이야기는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항상,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원칙의 내용이 구체성을 만나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본 연구는 동의를 구성하는 권력의 작동이 성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적 지향 외에도 나이, 계급에 따라 권력의 작동과 성적 동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후 중요한 연구 과제로 보인다.

● —————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나연, 하영)가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현재 10대이거나 10대 때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있다. 폭력은 상호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

피해 경험은 친밀성의 관계, 특히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폭력의 경험은 관계에 대한 기대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폭력의 피해,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망, 그리고 성적 동이의 연결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 ———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만나 성적 동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주도적인 성적 실천을 시도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 연구에서는 이것을 여성들의 해석투쟁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여성들의 해석 투쟁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지금의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성교육이 해석 투쟁을 지원하고 잘 지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해석투쟁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새로운 성교육의 시도들을 찾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여러 이야기가 담겼던 발제와 3개의 각각 다른 토론을 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어서 질문이나 이야기, 의견 내주실 분들 손을 표시해주시면 마이크가 찾아갑니다.

### 플로어 1

안녕하세요? 저도 되게 좀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면서 동의라는 것에 대해 되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커서 오늘 오게 됐었고. 그런데 막상 와서 들으면서는 저의 맥락에 대해 되게 집중해서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이틀테면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섹스가 무척 나쁠 수 있고 섹스가 페미니즘일 필요도 없고 대안적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섹스라는 걸 내 삶에서 한없이 하찮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요즘 들어서 나한테 이 동의를 질문하는 것에 되게 무기력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욕망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좀, 사람이 너무 환경적으로 바빠서 욕구가 덜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에 대해 무기력한 기분,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기분을 요즘 느끼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성적 욕망에서 수동적이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오히려 저한테 낯선 것 같아서 위험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의 서사를 들으면서 ‘나는 왜 나아가고 싶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플로어 2

이번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짧게 소감을 나누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뭔가 성폭력 경험을 하고 나서의 그런 비슷한 후유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해석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 내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폭력적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예스’라고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의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통제권을 가졌을 때의 섹스였는데, 그 경험을 꼭 SM뿐만 아니라 왜 일상에서 여성들은 그런 통제권을 갖기가 어려울까, 왜 남성들만의 몫이 될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토론자분께서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때 학대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든 언제든 제가 가부장의 부재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채우려고 하는 그 관계에서 또 다시 가부장적인 관계와 비슷한 경험들을 겪은 거예요. 가부장하고 비슷하게 저를 대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을 맺었을 때 왜 나는 그 폭력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성폭력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폭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플로어 3

저는 발표의 사례 중에서 리스트도 작성해 봤고 나의 성적 지향과 이전의 성적 경험을 토대로 존중하면서 어떤 행동 규범도 올바르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만났을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내가 을이 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불리한 혹은 유리한 걸 이해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오픈을 했을 때 내가 성적 경험을 하고 나서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하는 경험을 했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허용해주는 게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좀 반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장애 여성의 성폭력 말고 순수한 성적 경험, 즐거움에 대해서 성교육에서 말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게 좀 더 같이 고민해

나무

장애여성공감에서 공작소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치열한 해석 투쟁의 과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 여성의 삶의 맥락과 서사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경험 관련해서, 장애 여성에게는 비장애인 가부장 중심 사회 안에서 장애라는 위치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존재합니다. 장애 여성들이 정말 그것을 견디다 못해, 물리적인 폭력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배제의 경험을 견디다 못해 탈가정하는 장애 여성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관계들이 많이 있기에 그러한 경험들도 잘 연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 스스로 만족하는 성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허용해주는 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없죠.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적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그 범위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오늘 발표를 통해 새로운 자기 이야기도 열기도 하고, 부가적인 새로운 해석을 또 토론에서 얻기도 했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어갈 챕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분리했던 챕터를 합쳐서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교육’을 고민했던 영역에서, 혹은 여러 인권의 영역에서, 어떤 탈시설의 영역에서 성적 동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까 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웹페이지]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https://consent.or.kr>



[웹페이지]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https://consent-card-game.vercel.app/>



[자료집]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https://sisters.or.kr/data/report/280>



[자료집]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https://sisters.or.kr/data/report/293>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장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대,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의 문제임을 알리고 평등과 인권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8만 9천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통해 수동적인 대상으로 성애화되는 여성, 소수자들의 억압된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정의하는 균열과 변화에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분법적 성별권력관계 구조, 여성의 몸과 성을 규범화하는 통념, 차별과 혐오를 확대하는 사회문화에 맞서 평등하게 관계 맺고 나다운 모습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 후원안내  
: 정기, 일시 후원 홈페이지  
<https://sisters.or.kr>

○ 문자후원  
#2540-1991(건당 3,000원)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빠  
이  
내

질문  
하며,

우  
의  
관  
호

나  
아  
가  
기